

제18권 제3호

KREI

북한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61-820-2000 전송 061-820-2211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61-820-2367
최용호 yonghochoi@krei.re.kr 061-820-2191
임채환 herolch@krei.re.kr 061-820-2038

제18권 제3호

KREI 북한농업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포커스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농업 평가와 과제 3

2. 북한농업 동향

- 북한매체 보도 동향 17
- 국내매체 보도 동향 40

3.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69

4.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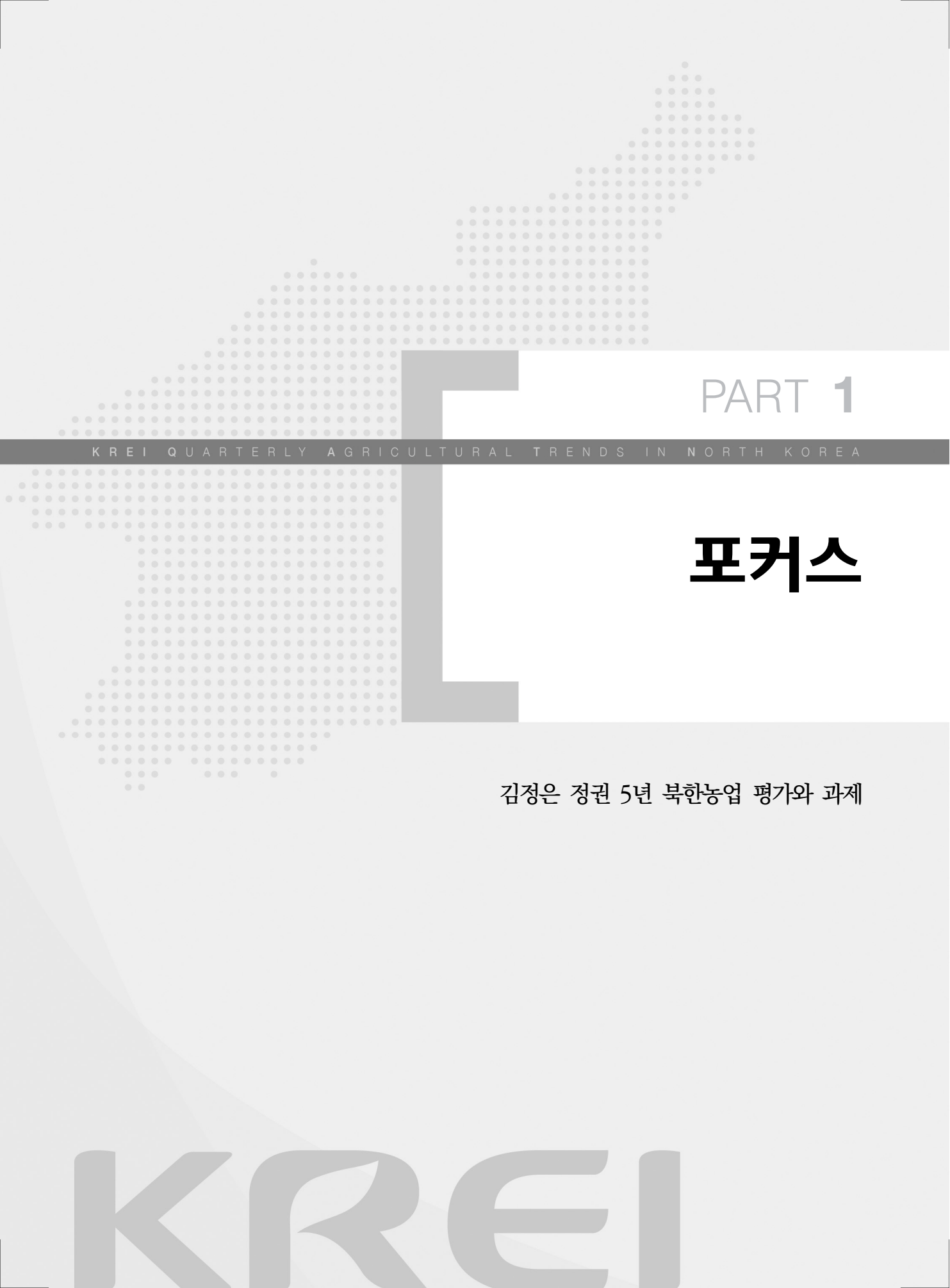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75
-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83

5.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 첨단기술개발구의 경제기술적 특성 95
- 림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에 대한 통계적연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97

6. 부록

- 남북한 교역 통계 105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109



PART 1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포커스

김정은 정권 5년 북한농업 평가와 과제

KREI



김정은 정권 5년 북한농업 평가와 과제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북한은 2017년 초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의 경제부문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 성과로 5개년 전략 등 경제발전 추동, 전력·금속·화학·석탄·철도·기계공업 과업 수행 강조, 경공업·농업·수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여명거리 및 원산지구 등 중요 건설역량 집중, 국토관리·산림복구·환경보호 강조 등으로 요약된다.

이 내용은 2016년의 신년사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과 ‘집단주의적 경쟁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한 데 비해 올해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2012년 이래 북한 경제관리의 이면적 지향으로 여겨져 온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본고에서는 김정은 집권 5년간 북한 농업의 주요 동향을 ‘개혁조치’와 ‘개방조치’에 초점을 맞춰 개략적으로 평가·전망하는 한편, 향후 추구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김정은 정권 5년 농정시책

김정은 정권 5년간 강조해 온 일반적인 농정시책은 고유의 특색을 뚜렷하게 드러낸 바 없다. 즉, 선대의 농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는 자원 동원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농업부문에서 식량 증산, 농업기반의 정비, 산림조성, 유기농업 확대 등 김정일 정권부터 강조되어 온 시책을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다. 식량 증산은 해방 후 지금까지

북한농업의 최대 목표이다. 농업기반 정비도 선대 정권에서 일관되게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이다. 유기농업 확대 역시 화학비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강조되어 오던 농정시책이었다.

다만, 황폐산림 복구·녹화와 관련해 산림 경사지의 농업적 이용을 고려한 산림복구 시책, 즉 ‘임농복합경영’ 방식의 산림 복구·녹화 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여 펼쳤다는 점에서 농업생산의 유지라는 제약조건을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참고〉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임농복합경영: 같은 토지구획 안에서 농작물 생산과 임업, 목축업 생산을, 동시에 또는 교대로 추진하는 산림토지관리체계임.

2013년 ‘임농복합경영’을 강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농촌마을 주변의 황폐화된 산림경사지 복구와 녹화에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발표함.

2 김정은 집권 5년 농업개혁과 개방 조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 들어 과거와 달리 특별히 강조한 농정시책은 뚜렷하게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 측면에서는 과거와 차별화된 조치가 있었다. 개혁적 조치로는 2012년의 ‘6·28방침’과 2014년의 ‘5·30조치’가 있으며, 개방조치로는 ‘지방급 경제개발구’ 설치가 있다.

(1) 새로운 경제관리 방침(6·28방침)의 농업개혁 조치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북한 경제 및 농업부문에서 취해진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의 ‘6·28방침’이다. 농업부문에서 ‘6·28방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협동농장과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국가가 보장함
- 국가와 협동농장(공장)이 일정률로 생산물을 분배함
-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함
- 개인 소유물은 자유로 처분할 수 있음
- 협동농장 내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으로 줄임

〈참고〉 ‘6·28방침(2012년)’의 주요 내용과 비평

〈주요 내용〉

협동농장과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국가가 우선 보장
비용은 시장가격으로 지불
협동농장의 작업분조 규모를 축소함

〈비평〉

비용의 국가 보장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시장가격 지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작업분조 규모 축소는 무의미하게 반복

그러나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6·28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혁’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첫째, 생산비용의 국가 공급과 생산물의 국가 수매는 북한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의 전형이다. 이는 사회주의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재확인한 데 불과한 것으로, 그간 국가가 수행하지 못했던 자본조달·공급 기능을 다시 수행하겠다는 선언에 해당된다. 둘째, 그 선언에 있어서도 실질적 내용은 뚜렷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던 정권 초기 상황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물자가 아닌 화폐(시장가격)로 공급한다는 것은 국가 조달·공급의 책임을 시장으로 떠넘기는 조치이며, 농업생산요소의 절대적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다. 셋째, 개인 소유물의 처분을 자유화 한다는 것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상품의 시장거래를 추진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6·28방침’의 농업부문 조치 내용 중 개혁적이라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협동농장 작업분조의 규모 축소이다. 이는 농업부문의 집단적 경영구조를 개별적 경영구조로 근접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업분조의 규모 축소는 1996년의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작업분조 규모 축소가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발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2014년의 ‘5·30조치’

북한은 2014년 농업부문에서 한걸음 더 나간 중요한 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다(김정은의 ‘5·30노작’¹⁾을 토대로 한 개혁조치). 이 조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신보(2015.1.8.); 연합뉴스(2015.1.9.); 김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2014.5.30., 통일뉴스(2015.1.6.) 재인용.

- 북한 내 협동농장과 기업소에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며 협동농장의 작업분조를 폐지하고 가족 단위의 영농을 도입함
- 농장 노동력 1인당 농지 1,000평을 할당하여 영농하게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은 국가와 개인이 각각 40%와 60%로 나눔

〈참고〉 ‘5·30’조치의 주요 내용

농장에 대한 자율 경영권 부여 -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자율경영 농가에 책임경영농지 배분 - 작업분조 폐지 - 노동력 1인당 0.3ha - 농업의 50~60% 농가 책임경영제 농가 농업소득의 분배 - 국가 수매 40%, 농가 소득 60% - 농가 인센티브 확대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현안과 과제 14-36호, 2014.9.24.

알려진 내용만으로 보면, ‘5·30조치’는 1978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 농업부문에 서 급속히 추진된 ‘생산책임제’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개혁적이다. 1978년 ‘포산도호(包產到戶)’로 시작된 중국농업의 생산책임제 개혁은 개별농가에 책임농지를 배분하고 목표치(정부수매)를 초과하는 산출물에 대해 농가에게 추가적인 배분을 실시하는 형태였다. 이 생산·분배 체제는 불과 4년 만인 1982년에 ‘포간도호(包幹到戶)’ 형태로 발전했는데, 이는 목표치(정부수매)를 초과하는 생산분에 대해 농가의 자유로운 처분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포간도호’가 공식화된 후 불과 2년 만에 중국의 농업은 사실상 개인농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 기간을 전후하여 중국의 농업생산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 농업에서 생산책임제 도입 후 개별농으로 전환되던 1980~85년 기간 동안 전국의 농업생산액이 48.2%나 상승했다. ‘포간도호’ 생산책임제는 중국의 농업경영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전환요소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중국의 개혁기 농업생산액 변화

단위: %					
연 도	경종작물	임 업	축산업	부업생산	계
1975~80	13.0	36.1	31.9	26.2	16.9
1980~85	36.2	54.9	65.5	170.8	48.2
1985~90	17.3	1.8	38.5	71.5	26.1

자료: 이일영,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중국의 농업생산책임제 개혁 사례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5·30조치'는 내용상 농민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혁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5·30조치'가 전국의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북한의 농업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의 농업생산 역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뿐, 개혁조치의 효과로 여길 만큼 획기적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개방을 통한 농업투자 유치 노력

김정은은 집권 후 개방의 폭을 좀 더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규를 수정·보충하여 외국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존의 중앙급 경제특구를 개편하고,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새로 지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우선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규 개정을 보면,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 10개의 법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²⁾ 그 주요 내용은 이익이 나는 첫해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³⁾, 외국투자은행의 경우 조선은행(북한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가장 큰 경제개방 조치는 경제특구의 개편과 새로운 지정을 통한 국제자본 유치 노력이다. 이는 2013년 5월에 발표한 '경제개발구법'에 나타나 있다. 이 법은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에 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표3). 여기에는 기존의 투자유치 관련법과 달리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 이 법에 의거해 지정된 경제개발구에는 농업에 특화된 개발구(함경남도 북청, 함경북도 어랑, 평안남도 숙천)도 포함되어 있다.

2) 연합뉴스 2012.2.10.일자, “北 외국투자기업등록법·세금법도 개정”; 연합뉴스 2012.3.11.일자, “北 투자유치 위해 남북경협보험 모델 도입” 등

3) 연합뉴스 2012.2.9.일자, “北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 면제…법 개정”

4) '경제개발구법(2013)'에는 기존에 북한 법률에서 볼 수 없었던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이 제60조, 제61조, 제62조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표 2 중앙급 대외 경제특구 주요 내용(1990년대~)

지역	주요 내용
나진·선봉	-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FETZ)' 설치 - 2011년 '나선경제무역지대' - 2008~현재 북한/러시아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일환, 국내기업 컨소시엄 참여 검토
신의주	-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 2014년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로 개편
기타	- 2014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지정 - 2014년 강령개발구(황해남도), 은정개발구(평안남도), 진도개발구(평안남도) 지정

표 3 지방급 대외 경제개발구

구 분	2013.11.21. 지정	2014.7.23. 지정
경제개발구	함북 청진, 자강 만포, 양강 해산, 평북 압록강	
공업개발구	자강 위원, 함남 흥남, 강원 현동	평남 청남
농업개발구	함남 북청, 함북 어랑	평남 숙천
관광개발구	황북 신평, 함북 온성섬	평북 청수
수출가공구	함북 송림, 평남 와우도	

이와 같은 북한의 외국자본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기대한 만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급 특구와 주요 도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투자국(중국)의 지하지원 개발수입과 대가의 지급, 투자국(중국, 러시아)의 교통로 확보를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건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뿐, 산업 유치를 통한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16년 들어서는 유엔의 제재 강화, 개성공단의 폐쇄 등으로 북·중·러 국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오히려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김정은 시대 농정개혁·개방 조치의 평가

(1) 개혁 조치의 평가

2015년 중반까지는 북한의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채택했다는 농업생산부문 개혁조치(5·30조치)로부터의 기대였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생산 인센티브를 크게 부여하는 개혁조치가 영농현장에 적용되면, 중국 개혁기의 경우와 같이 큰 폭의 농업생산 증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개혁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대로 귀결되지 못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식량 생산이 소폭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두 차례의 중요한 농업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의 농업개혁조치가 농업생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최근 북한 식량수급 상황의 변화

단위: 만톤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국내 생산공급량	492	503	508	480
도 입 량	(30)	(30)	(30)	(30)
소 요 량	539	542	547	550
공 급 량	(522)	(533)	(538)	(510)
부 족 량	16	9	9	40

주: ()는 추정 당시의 잠정치

자료: FAO Statistics; FAO/WFP, CSFAM

농업개혁조치 이후 식량생산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첫째 이유는 농업개혁조치의 작동에 ‘외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농업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대규모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의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북한의 식량조달분배 사정에 따른 ‘내적 제약’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약은 현재의 어려운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전면적인 농업개혁에 착수하기

가 어렵다는 추론에 기초한다. 농업개혁에 따라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것이 지속적인 생산 증대로 이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선순환이 가능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농업개혁에 착수하면 농업부문에서 식량생산이 일시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식량생산의 증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몫으로 분배해 생산동기를 고취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식량수급 사정에 의해 북한 농업은 생산자에 대한 분배몫을 크게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개혁 이전부터 주민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북한 경제 당국에게 농업개혁 후 일반 배급물량의 감축 압력은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량의 절대부족 상황에서 농업개혁은, 생산 증대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반면 배급을 줄여 배급 의존계층과 취약계층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개혁에 수반되는 생산 인센티브 부여도 충분하고 지속적인 식량 공급의 증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개혁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현존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문제 완화와 함께 북한이 추진하려는 농업개혁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개혁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적지 않은 식량도입이 도입이 필요하다.

(2) 개방 조치의 평가

경제개방 관련 법규의 보완과 새로운 경제특구·개발구의 설치 등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는 당연히 투자증대를 기대하고 취해진 것이다. 북한의 대외 개방의지와 개방조치가 꾸준히 지속된다면⁵⁾ 북한의 대외교역과 외국의 대북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이 경우 농업부문에서는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도입 수요와 대외 농업협력 수요도 함께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에 국제 산업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제개발구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 사회가 외국의 투자자가 매력을 느낄만한 인적·제도적 환경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통·통신·금융 등 투자에 필요한 물적 기반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개방 의지 및 조치와 관계없이 2016년 들어 교역과 외국인 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남북한 간에 활발히 추진되던 개성공업지구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경제 개방과 투자유치 확대 노력에 중대한 장애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5) 그러나 2016년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북한의 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국제사회 및 남한과의 경제교류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4 전망과 과제

(1) 전망

우선,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농정시책과 지금까지의 개혁·개방조치가 농업생산 증대에 주는 단기 효과는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초까지 북한의 농업생산은 유리한 기후조건으로 2015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7~8월에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로 인해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FAO의 2016년 북한 작황 전망

- 2016년 초 유리한 기상조건으로 인해 생육기간 동안 작물이 잘 성장하였음. 그러나 8월 말 북부 일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함.
- 8월 집중호우로 인해 27,411 ha에 달하는 농경지(전체 경지의 2%)가 피해
- 2016년 쌀 생산량은 2015년 보다는 높지만 지난 3년 평균 생산량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옥수수 생산량은 평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전체 식량 생산은 예년 수준으로 예상

자료: FAO,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9.

북한 농업의 중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북한 농업은 여전히 ‘자본부족과 개혁부진의 함정’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 5월의 ‘7차 당 대회’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경제개발전략’과 올해의 신년사에서 농업중시 내용은 기존 농정과 뚜렷한 차별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 획기적인 농업생산 증대를 전망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수출 감퇴가 현실화되고 해외 거래와 운송에 실질적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 여파로 농산물 및 농자재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농산물 수급사정이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미미하지만 국제사회 제재 분위기에 편승해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개연성도 있다.

(2) 과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농업농촌복구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북한의 농업개발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는 바람직한 시도라 평가된다. 과거 북한 경제위기 시 추진되었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AREP)’ 추진 사례는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개발협력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이 방식의 협력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경제특구를 강화하는 특구개발 전략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특구의 시장경제와 나머지 지역 계획경제의 병행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구는 경제적·지리적 입지를 감안해 특성화를 추진하며 본토는 분권형 계획경제체제를 정착·효율화시켜 나가는 한편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 투자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를 충분히 개방하지 않고 있다. 설혹 자유로운 출입과 활동을 보장한다고 해도 열악한 인프라 환경, 내수시장의 부재, 북한 내 인적 능력의 부족 등 투자유치 장애요소가 여전히 많다. 농업개발구 역시 구체적인 농업투자 유인책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농업개발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구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이 충분히 고려된 농업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연관효과 창출이다. 특구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지역 주민의 소비생활을 통해 본토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배후지 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특구의 농산물 수요 증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구에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 주민의 소득 수준은 상승하고 농산물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특구 배후지에 농산물 공급기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새로운 대외 농업협력모델의 개발이다. 특구 내외에서 농업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시장과 농자재 공급처가 존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특구의 농업개발협력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그 농업개발방식을 점차 북한 본토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전반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초기에는 경제와 농업부문에서 투자와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는 개혁 및 개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구의 농업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협력의 효과가 본토로 확산되면 농업관리체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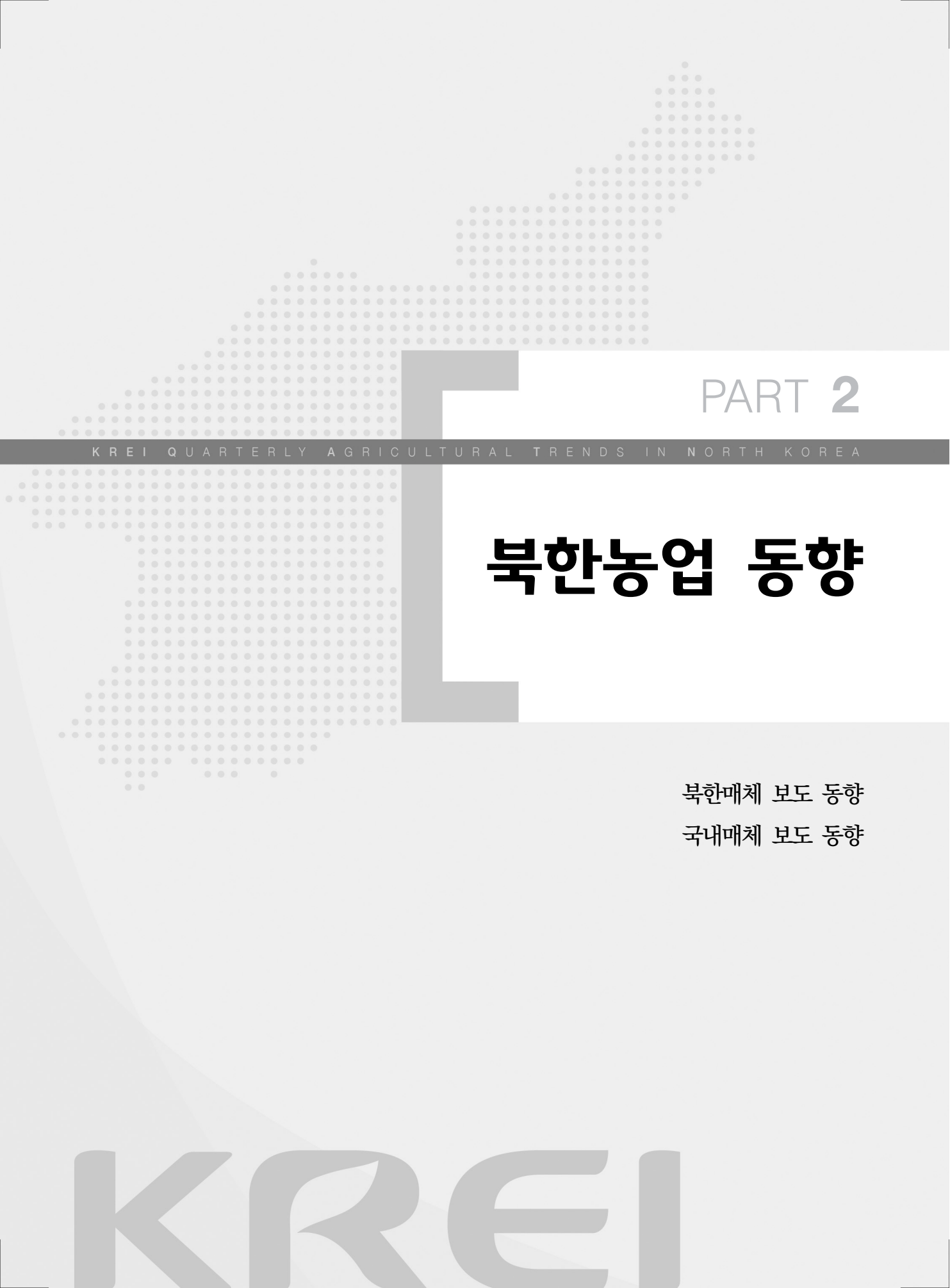
김정일 사망 후 들어선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경제정책에서 그들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농업부문에서도 김정일 시대의 농정을 계승하여 새 정권 고유의 정책이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 경제 및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의 ‘6·28방침’과 2014년의 ‘5·30조치’이다. 이들 개혁적 조치의 요체는 농업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2012년 이래 북한 농업에서 획기적인 생산 증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15년에는 농업 생산이 오히려 감소한 바 있다. 이 결과는 북한 농업부문의 개혁조치가 농업생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방 조치는 경제개발구의 지정을 통한 국제자본 유치 노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북청(함경남도), 어랑(함경북도), 숙천(평안남도)에 농업에 특화된 개발구를 지정하여 농업자본의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새로 지정한 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의 ‘제7차 당 대회’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경제개발전략’에 농업 중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의 농정과 뚜렷한 차별성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최근 대북제재 국면에서 제재의 간접적 효과가 북한 농업부문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제재로 인한 수출 감퇴가 현실화되고 해외 거래와 운송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 영향으로 농산물 및 농자재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미하지만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이 위축될 개연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북한 농업은 여전히 ‘자본부족과 개혁부진의 함정’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 당분간 획기적인 농업생산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환경도 북한경제에 유리하지 않아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식량수급의 불균형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RT 2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KREI

북한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농업정책

◆ 김정은의 현지 지도 및 박봉주 총리의 현지 이해

김정은의 평양곡산공장 현지 지도(로동신문 2016.07.13.)

○ 김정은은 평양곡산공장을 현지 지도하였음.

- 김정은은 옥수수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기름과 가축 사료 등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았음.
- 옥수수 가공 공정은 물엿과 옥수수 당 등 당 관련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녹말을 얻는 선행 공정 중 하나임. 옥수수 가공 공정에서 나오는 눈과 껍질을 이용하여 기름과 가축 사료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정이 주목 받고 있음.

박봉주 총리의 금성트랙터공장 현지 이해(로동신문 2016.08.15.)

○ 박봉주 총리가 금성트랙터공장을 돌아보았고 노동자를 격려하였음. 이밖에도 박봉주는 순천지게차공장, 강서기관부속품공장을 돌아보았음.

김정은의 조선주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 농장 현지 지도(로동신문 2016.09.13.)

○ 김정은이 조선주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였음.

- 김정은은 농장에서 새롭게 육종한 옥수수 및 벼 종자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다수확 품종의 농작물을 살펴보았음. 이후 김정은은 농작물 시험 및 재배 포전과 온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았음.
- 김정은은 북한의 기후와 풍토 조건에 적합한 고밀집형 다수확 옥수수 품종에 만족하였음.

김정은의 고산과수종합농장 현지 지도(로동신문 2016.09.18.)

○ 김정은은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 지도하였음.

- 김정은은 전망대에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전경과 과일 밭을 감상하고 새롭게 건설된 과일 보관고를 보았음.

김정은의 용악산샘물공장 현지 지도(로동신문 2016.09.30.)

○ 김정은이 용악산샘물공장을 현지 지도하였음.

- 김정은은 통합 조종실, 용기 생산 공정, 원수 펌프장, 샘물 생산 공정, 제품 보관실 등 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샘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하여 이해하였음.
- 공장 생산 설비는 외부와 격리되어 있으며 위생 통과실, 공기 조화 및 정화 설비를 설치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였음.

◆ 과학영농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에서 160여 종의 우량 품종 과일나무를 육성(로동신문 2016.07.13.)

○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의 일꾼과 연구원은 최근 5년 간 160여 품종의 과일나무를 육성하였음.

- 새 과일나무 품종은 사과와 배, 복숭아, 자두, 살구, 포도, 감, 대추, 호두, 밤나무를 등 20여 가지의 수종이 포함되어 있음.
- 조생종, 만생종 등 다양한 품종의 과일나무가 육성되어 북한 주민이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농촌 지원 사업을 짜고 들어(로동신문 2016.07.1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당의 중요 사업으로 여기고 투자하고 있음.

- 2016년 5월 초 초급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시기 농촌 지원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확대회의에서의 분석을 기초로 해당 일꾼을 각 농장에 파견하고, 석유와 농기구, 비료와 제초제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금속공업성, 경공업성, 상업성 당 조직의 일꾼은 농촌 지원 사업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가하였음.

전국잔디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6.07.22.)

- 2016년 7월 20~21일 전국잔디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해주잔디연구소, 원산농업종합대학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이 발표회에 참가하였음.
- 발표회에는 잔디의 우량 품종 및 잔디 발 조성과 비배 관리에 관한 3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되었음.《금잔디록색기일을 늘이기 위한 식물활성촉진제제조에 대한 연구》,《우리나라 서남지대에 적합한 종합적잔디발이용가치평가방법》등이 실천적 의의가 커서 좋게 평가되었음.
- 이번 발표회에서는 장마철 잔디 재배와 관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와 병해충 예방에 대한 강의로도 진행되었음.

알곡 증산의 돌파구를 여는 혁신적인 농사 작전과 지휘(로동신문 2016.08.09.)

-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은 조생종 모 재배 방법을 도 전역에 도입하였음.
- 평안북도 농업 일꾼은 지난 몇 해 동안 선진 농법을 도입하여 조생종 모 재배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음.
- 농장에서 조생종 모 재배 방법을 도입한 결과 2016년 모내기를 보름 만에 마쳤음. 또한 평안북도 농장이 앞그루 작물을 심었던 포전과 모판 자리에 선진적인 조생종 모 재배 방법을 도입하여 벼 종자, 모판 자재, 노동력을 절약하면서 알곡 생산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음.

살충 효과가 큰 유아등 제작 및 설치 - 단천시에서(로동신문 2016.08.09.)

- 단천시는 새롭게 개발한 빛 유인성 고전압 유아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 기존의 유아등은 1정보에 4개를 설치하였음. 이번에 개발된 유아등은 20정보에 1개를 설치해도 살충 효과가 기존에 비해 2배 이상이었음.
- 살충 효과가 개선되며 단천시 농장은 정보당 알곡을 수백 kg 증산할 수 있었으며, 유아등은 작동에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국토환경보호 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6.08.23.)

- 국토환경보호 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2016년 8월 22일 주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국토환경보호 부문의 일꾼, 과학자, 기술자, 교원이 발표회에 참가하였음.
- 발표회에서는 산림 조성과 토지 보호 사업을 혁신하고 도로와 강하천 건설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환경과 자연 보호 관리 사업에 대한 40여 건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음.

- 《생태피우개에 의한 식물재배기술로 강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생물학적고도 정화방법》, 《나무모생산기질용 질석광석선별공정확립에 대한 연구》, 《대동강갑문저수지들의 저수용적 및 퇴적량평가》, 《환경보호에서 석탄층가스자원개발의 역할》, 《개별용기에 의한 나무모영양단지생산방법》 등이 높이 평가되었음.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 진행(로동신문 2016.09.24.)

○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가 2016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신계군에서 진행되었고 각지 농기계 공장들과 과학, 교육 부문 등의 많은 단위가 전시회에 참가하였음.

- 전시회에는 북한 지형 조건에 맞는 물 절약형, 노동력 절약형 농기계와 다기능 농기계 등 30여 종, 240여 대의 농기계, 부속품이 출품되었음.
- 전시회에서는 토양 관리 기계, 파종 및 이식 기계, 비배 관리 기계, 수확 및 탈곡 기계 등에 대한 심의와 평가, 현장 시연이 진행되었음. 특히 두둑 짓는 기계, 종합 토양 관리 기계, 종자 정전기, 이동식 옥수수 종합 탈곡기, 나래 찌는 기계 등이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음.
-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양시가 특등을, 황해북도가 1등을, 평안남도 남포시가 2등을, 평안북도외 함경남도가 3등을 수상하였음.

전국산림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6.09.28.)

○ 2016년 9월 26일과 27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하여 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산림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국토환경보호성, 임업성,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황해남도국토건설설계연구소, 강계농림대학, 안주시산림경영소, 대관군산림경영소의 교원, 연구사, 현장 일꾼, 3대 혁명소 조원들이 참가하였음.
- 과학자, 기술자와 산림 부문의 근로자는 채종, 나무모 기르기, 나무 활착률과 생산성 제고, 임농 복합 경영 등 산림 조성과 보호, 산림 경영 사업에 관한 과학 연구 논문을 소개하였음.
- 발표회에서는 《봄과 여름에 옮겨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에 미치는 몇 가지 약제처리의 영향》, 《털벌레애기작은벌의 기주범위와 몇가지 생물학적특성》, 《어린모심기에 의한 산림식수방법》 등 산림 복구 전투와 산림 과학 기술 발전에 중요한 수십 건의 논문이 높이 평가되었음.

2 농림축산업

◆ 농업

앞그루작물수확 마감단계에서 추진 - 평안시에서(로동신문 2016.07.01.)

- 평안시 농업 근로자는 밀, 보리, 감자 등 앞그루 작물을 수확하였음.
 - 만경대남새전문농장은 계획보다 일주일 빨리 앞그루 작물을 수확하였음. 당의 이모작 방침에 따라 배산남새전문협동농장과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은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여 앞그루 작물을 전부 수확하였음.

콩 포기가 습해를 받지 않게 - 토산군에서(로동신문 2016.07.09.)

- 토산군의 일꾼과 농장원은 콩밭 비 피해 예방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토산군의 농장원은 고인물 피해, 습해, 도복 피해 등 시급한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웠음.
 - 하남협동농장은 김매기와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여 고인물 피해와 습해 방지 대책을 세웠음. 후치질 작업을 맡은 농장원은 2차, 3차 후치질을 깊이 하여 장마철에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뿌리 활성에 유리한 통기 환경을 조성하였음.
 - 수합협동농장은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콩 포기가 넘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음.

각종 대용비료를 생산 이용 - 안변군 학천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7.11.)

- 안변군 학천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은 생산 목표(논 1정보당 10톤)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벼 생육 후반기의 비배 관리에 집중하였음. 이는 장마철에 일조율이 낮아 광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임.
 - 농장은 장마철 농작물에 영양 공급을 위해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대체 비료를 적극 생산하여 이용하려는 목표를 세웠음. 농장원은 밭 옆에 가마를 설치하고 쭉과 떡갈나무 잎, 감자 줄기 등을 진 거름과 함께 끓여 만든 대체 비료를 생산하였음.

콩 포기마다 알찬 열매가 - 철산군에서(로동신문 2016.07.11.)

- 동천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은 평소 10일 이상 소요되는 후치질 작업을 일주일 만에 완료하였음.
 - 농장의 일꾼과 농장원은 북주기 작업을 계획보다 1.2배 초과하여 수행하였고 콩 모종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였음.

- 일꾼과 농장원은 장마철 발생하는 해충에 대비하여 병해충예찰사업을 강화하였음. 병해충 예찰사업은 해충 발생 즉시 식물성 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구제하는 방법임.

○ 성암, 금산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은 콩밭에서 2회 후치질하였고 현재 3회 후치질을 진행하고 있음.

- 농장은 습기가 많은 밭에는 후치질을 1~2회 추가 진행하여 비배관리를 하고 있음. 근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도 콩밭 후치질과 복주기에 집중하며 엽면산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과일군의 첫물복숭아 수도 시민에게 공급(로동신문 2016.07.12.)

○ 과일군에서 생산된 2016년 만물¹⁾ 복숭아를 실은 과일 수송대가 10일 평양에 도착하였음.

- 과일군의 일꾼과 근로자는 과실수 비배관리를 확실히 하여 좋은 수확을 거두었음. 수송된 과일은 평양의 대동강 기슭 문수주차장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과일은 평양시 학원,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에 분배되었음.

과학 농사에 성과의 비결이 있다 - 청단군에서(로동신문 2016.07.12.)

○ 청단군의 농장은 모내기 작업을 작년에 비해 10~25일 앞당겨 끝냈으며, 김매기 작업과 자연 재해 대비 작업을 진행하였음.

- 청단군의 당위원회는 영농 공정별, 시기별 시범 농장을 선정하고 다른 농장이 시범 농장의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적용하도록 유도하였음.
- 심평농장은 파종 작업의 시범 농장으로 선정되어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음. 청단군의 모든 농장이 심평농장의 시범 사업을 통해 배운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하여 튼튼한 모를 키우고 모내기 시작 날짜를 앞당겼음.
- 화산협농장의 제13작업반은 모내기 작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음. 시범 사업에는 청단군 군급 기관의 직원과 농장원, 당 초급 선전 일꾼이 참가하였음.

1,000여만 톤의 잡초 제거 - 서해지구 농촌에서(로동신문 2016.07.21.)

○ 서해지구 농촌에서 1,000여 만 톤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 평균 8만여 톤의 잡초를 제거하고 있음. 실적이 전년 대비 12% 높아졌음.

- 특히 숙천군과 증산군은 실적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군의 농업 일꾼은 김매기와 병해충 방제, 이삭 비료주기, 논 비배 관리, 장마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수행하고 잡초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음.

1) 과일,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

- 모든 농업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10여만 톤의 잡초를 제거하였음. 서해지구의 농촌 중 일주일 간 잡초 제거 계획의 30% 이상을 수행한 단위는 2015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음.

당위원회에서 영농 작업을 고무 -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16.08.01.)

- 황해남도당위원회는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는 영농 작업을 과학 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였음.

- 황해남도 당일꾼과 도급기관 일꾼, 농업 부문 과학자, 기술자가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과학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농업 근로자를 격려했음. 파견된 노동자는 농장 근로자에게 각시, 군의 기후 조건과 농작물의 생육 상태에 따른 농업 기술을 가르쳤음.

당위원회에서 영농 작업을 고무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16.08.01.)

- 평안북도당위원회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곡물 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조생종 모를 전 면적에 도입하여 영농 자재를 절약하면서 곡물 생산량을 1.5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평안북도의 모든 협동 농장은 잡초 제거 작업을 하면서 논 네벌 감매기와 옥수수밭 다섯벌 감매기, 이삭 비료주기, 장마철 피해 예방 작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용천군, 염주군, 신의주시의 농업 근로자는 조생종 모 재배 방법을 도입하여 훌륭한 농사 작황을 마련하였음.

관리 기계 계열 생산 준비 활발 - 대동군농기계작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8.05.)

- 대동군농기계작업소에서 종합토양관리기계의 생산 준비에 집중하고 있음.

- 종합토양관리기계는 들취갈이²⁾, 씨레치기, 수평 고루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용도 기계임. 종합토양관리기계는 깊이갈이를 하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토양의 물 보유 능력을 높여 최소 9~12% 알곡을 증산할 수 있음.

마지막까지 중시해야 할 논물 관리 - 봉산군 묘송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8.09.)

- 묘송협동농장은 논물 관리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전습³⁾ 조직을 만들었음.

- 농장은 최신 농업 과학 기술 자료와 영상 자료, 다매체 편집물을 이용하여 논물 관리공이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음.

2) 흙을 완전히 뒤집어엎지 아니하고 땅을 들추어만 주는 갈이. 논밭의 흙이 쪼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함.

3) 전습(傳習):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 익힘.

- 논물 관리공은 기술 전습을 통해 물을 깊이 대면 뿌리의 활성이 낮아져 벼무늬마름병, 벼 흰잎마름병이 쉽게 발생한다는 것과 흐름식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면 고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익혔음.

이동식 밀보리 종합 탈곡기 창안 제작 - 은파군농기계작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8.09.)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농기계작업소 일꾼은 새로운 이동식 밀보리 종합 탈곡기를 제작하였음.
- 초구협동농장 제2작업반은 새롭게 제작한 종합 탈곡기를 이용해 앞그루 밀보리 탈곡을 진행하였음.
 - 2015년 10여 정보에 심은 앞그루 밀보리 탈곡 작업은 15~20일 동안 연 200여 명의 노동력이 소모되었음. 종합 탈곡기가 개발된 이후 농장은 2일 동안 연 12명의 노동력으로 탈곡을 마칠 수 있었음.
 - 종합 탈곡기의 시간당 작업량은 1.2~1.5톤이며, 송풍기의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콩, 녹두, 팥 등 키 낮은 여러 곡종에 대한 낱알 털기도 가능함.

사과 맛 경쟁의 열풍 속에 - 북청군에서(로동신문 2016.08.11.)

- 용전과수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과일 나무 비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음.
 - 농장은 사과나무의 잎을 보고 영양 상태를 진단하여 흙보산 비료와 미량 원소 비료를 주었음. 농장의 경험에 따르면 잎이 왕성하며 윤기가 있는 나무의 사과는 맛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의 사과 알은 작고 색깔과 맛도 좋지 않았음.
 - 농장 일꾼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사과나무에 흙보산 비료를 묻어주고 미량 원소 비료를 분무하였음. 반면, 영양 상태가 좋은 사과나무에는 미량 원소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5~7일에 한 번씩 분무하였음.
- 북청과수농장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도 맛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음. 농장은 해충 예방을 위해 창포 뿌리로 만든 식물성 농약을 적극 이용하였음.

앞선 포도나무 재배 방법 - 사리원과수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8.17.)

- 사리원과수농장은 포도나무의 생물학적 특성과 포도 생산에 영향을 주는 일조량, 통풍조건, 지력 등 여러 요인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포도 생산량이 열매까지 수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농장은 콘크리트 지지대 사이 공간을 이용하는 포도나무 재배 방법을 착상하였고 포도나무 가지 사이의 거리를 넓혀 일조 면적이 늘어나면서 통풍 조건이 개선되었음. 농장은 포도나무의 열매까지 배치를 많이 하여 포도 생산량을 2배로 늘렸음.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로동신문 2016.08.21.)

○ 숙천청년과수농장은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농장은 과일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효능 높은 대용 농약을 이용하여 병해충 구제 사업을 진행하였음. 송덕지구 제2, 3작업반, 낙원 작업반은 농약 뿌리기에 필요한 분무기를 준비하여 매일 농약 뿌리기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

매일 약 50만 톤의 잡초 제거(로동신문 2016.08.2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촌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매일 50만 톤 이상의 잡초를 제거하였고 계획을 90% 이상 달성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1.3배 높은 실적이며 전년보다 5일 이상 빨리 잡초 제거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양강도의 대흥단, 백암, 갑산군 등은 7, 8월에 베어낸 잡초가 9, 10월에 벤 잡초보다 질소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잡초 제거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였음.
- 황해남도 농장은 퇴적장 바닥을 일정한 깊이로 파고 풀 더미 안의 습도를 60~70%로 유지하며 수산화칼슘을 섞어 식물성 비료를 만들고 있음.

그림 1

다흥단벌의 밀보리 수확



자료: 로동신문 2016.08.24.

대홍단벌에서 밀보리 수확 한창(로동신문 2016.08.24.)

○ 밀보리 수확이 대홍단벌에서 진행되고 있음.

- 군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군5호농업경영위원회는 농장의 실정에 맞게 종합 수확기를 배치 하였음. 관리 일꾼이 운전공과 수확기를 함께 타고 밀보리 수확을 진행 중임.
- 신흥농장은 수확 계획을 포전별, 구역별로 세워 밀보리 수확을 가장 먼저 마쳤음. 홍암농장의 운전공은 수리 정비를 하루 1시간 이상 진행하였고, 매일 6정보에 달하는 면적의 밀 보리를 수확하고 있음.

운반 수단 준비를 빈틈없이 - 평원군에서(로동신문 2016.09.02.)

○ 평원군 일꾼은 가을 수확 준비를 할 때 운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2015년, 평원군의 농장이 동원한 트랙터가 가을 수확 기간 내린 비로 인해 포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운반 실적이 낮아 수확 계획에 지장을 주었음. 2016년, 농장은 트랙터가 포전 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여 달구지를 적극 이용하였음.
- 일꾼은 2016년 작황을 토대로 수확에 필요한 부림소 마리 수와 달구지 대수를 추산하였고 군의 일꾼은 기관, 기업소를 동원해 수백 대의 달구지를 수리하여, 가을 수확에 대비하 여 활용할 예정임.

트랙터 정비에 큰 힘을 - 신천군 월성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9.02.)

○ 신천군 월성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은 옥수수 추수에 대비하여 트랙터를 정비하였고 농작물의 생육 기일이 빨라져서 옥수수 가을걷이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음.

탈곡 능력을 1.5배 이상 높이도록 - 온천군 읍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9.02.)

○ 온천군 읍협동농장은 추수 준비 때 벼 종합 탈곡기 《남농1》호를 보수·개조하여 활용하였음.

- 농장은 탈곡기 개조를 통해 생산 능력이 1.5배 증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농장 일꾼과 기술자는 짧은 기일 안에 설비 개조 사업을 끝낼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와 함께 연구 하였음.
- 농장은 탈곡기 개조를 통해 탈곡 능력을 개선한 것은 물론 앞선 열처리 방법을 도입하여 탈곡기 수명을 5배 늘렸음.

먹이풀 수확에서 최고 기록 - 평양시려단 중구역대대에서(로동신문 2016.09.07.)

○ 평양시려단 중구역대대 일꾼과 돌격대원은 인공 초지에서 먹이풀을 수확하였음.

- 중구역대대는 유기질 비료를 초지에 뿌렸고 먹이풀 수확량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음.

- 일꾼은 자급 비료에 물을 섞어 정보당 5톤, 닭 배설물을 섞은 물은 1톤씩 모든 면적에 뿌려주었음. 유기질 비료를 활용한 결과 먹이풀의 초기 생육이 왕성하여 잡초가 자라나지 않았음.

이동식 벼 종합 탈곡기 생산 - 재령군 신환포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9.11.)

- 재령군 신환포협동농장에서 11대의 이동식 벼 종합 탈곡기를 제작하여 짧은 기간 내 탈곡을 끝낼 수 있었음.
 - 농장은 기존 보유 탈곡기만으로는 탈곡 작업을 빨리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동식 벼 종합 탈곡기를 생산하였음.
 - 이동식 벼 종합 탈곡기는 6명의 노동력이 소요되는 양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며, 시간당 많은 양의 낱알을 털어내면서도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설치되어 있음. 농장은 이동식 벼 종합 탈곡기를 10대 추가 생산하여 농장에 배치하였음.

과일 증산의 돌파구는 이렇게 열렸다 -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일꾼과 근로자들(로동신문 2016.09.16.)

- 몇 년 전 냉해 피해를 입은 과일나무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봄에 기온이 오르내려 농장의 사과 생산 여건이 좋지 않았음.
- 농장의 일꾼과 노동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였음.
 - 농장은 계획보다 정보당 10톤 이상의 밑거름을 주었으며, 각종 미량 원소 비료를 이용하여 사과나무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였음. 농장은 또한 자체적으로 거름을 생산하여 2016년 새해 첫 전투 기간에 1,0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였음.
 - 농장 일꾼은 봄철 밑거름 주기, 병해충 구제 사업 등을 진행하여 전년 대비 4배의 사과를 생산하였음.

옥수수 가을걷이를 끝낸 비결 - 정주시 침향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9.17.)

- 침향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은 10일 동안 옥수수 가을걷이 작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음. 농장 일꾼은 트랙터 가동률은 높이고, 적기에 트랙터를 수리하여 옥수수 운반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음.

홉 생산에서 최고 수확 연도 돌파 - 양강도에서(로동신문 2016.09.20.)

- 양강도의 지역 특산물인 홉의 꽃따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양강도는 2016년 여느 해보다 1.7배의 흙을 수확하여 계획을 160% 이상 달성하였음. 백두산 기슭의 운충강 하류에 위치한 운흥농장에서 생산된 흙은 품질이 좋아 대동강 맥주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사과 수확이 한창 - 북청군 용전과수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9.26.)

○ 북청군 용전과수농장에서는 사과 수확이 진행되고 있음.

- 군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농장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유기질 거름과 흙보산 비료, 물거름을 생산하여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음.
- 또한 농장에서는 매주 진행되는 기술 학습의 날을 이용하여 농업 근로자가 과일나무 비배 관리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도록 하였음. 농장 근로자의 노력으로 용전과수농장은 좋은 작황을 마련할 수 있었음.

알곡 생산에서 최고 수확 연도 수준 돌파 - 안변군 천삼협동농장(로동신문 2016.09.28.)

○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은 벼농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추수를 진행하고 있음.

- 농장은 올해 쌀을 정보당 10톤 가량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냉해, 낮은 일조율 등 동해지역의 기후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방도를 찾아 실행하였음.
- 농장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 모 품종을 선정하고 모기르기에 집중하였음. 이밖에도 일꾼은 낮은 기온을 극복하기 위해 조생종 모 재배 방법을 도입하였음. 모가 자라는 기간 물 주기를 할 때마다 아미노산 미량 원소 복합 비료 등을 꾸준히 주어 소식 재배 방법으로 모내기를 하였음.

○ 농장에서는 유기 농법을 적극 도입하였음.

- 유기질 비료나 생물 농약 등으로 농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고 많은 소출을 내도록 하는 유기 농법을 도입하며 화학 비료 사용량을 줄였음.
- 농장원은 여름철 낮에 오리를 논에 놓아기르고 밤에는 우리에 넣어 배설물을 받아 배합 사료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장은 가축 800여 마리를 길러 농장원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수천 톤의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에 의한 유기 농법을 도입하였음.

○ 그 결과, 농장의 벼 이삭당 평균 알 수는 150알 이상이며, 정보당 10톤 이상의 알곡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 임업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 개발(로동신문 2016.07.15.)

- 북한이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를 새롭게 개발하였음.
 -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는 산림 자원의 조사, 분석,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 체계로 산림 자원 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음.

여명거리 건설장에 많은 통나무를 보장 - 임업부문에서(로동신문 2016.07.18.)

- 임업 부문의 일꾼과 통나무 생산자는 여명 거리건설에 필요한 통나무를 원할히 생산·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임업 부문의 일꾼과 통나무 생산자는 여명거리 건설장에 여러 차례에 걸쳐 1만 수천 m³의 통나무를 공급하여 주택과 공공건물 골조 공사에 기여하였음.
 - 특히 용림, 낭림, 자성림 산사업소의 일꾼과 근로자는 효과적인 채벌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매일 통나무 생산 계획을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음.

나무모 생산량 10배 증가(로동신문 2016.08.1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나무모 생산량이 10배 증가하였음.
 - 북한은 나무모 증산을 위해 전국에 백 수십 개의 나무모 야외 재배장을 건설하였음.
 - 중앙양묘장은 4정보 야외 재배장을 추가 건설하였고 컴퓨터에 의한 명령 체계를 구축하여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을 높였음. 그 결과 매년 2,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 태천군산림경영소 일꾼과 기술자는 야외 재배장의 물관에 신기술이 적용된 노즐을 사용하여 물이 안개처럼 뿜어지게 하였음.
 - 정평군산림경영소 일꾼과 종업원은 4km 떨어진 저수지의 물이 자연흐름식으로 양묘장까지 흘러들게 하여 물을 절약하면서 나무모 생산을 늘렸음.
 - 어랑군산림경영소는 모체 양묘장에 14개의 회전 분무식 원형 삼목장을 건설하여 창성잎갈나무모 등 여러 종 나무모를 가지삼목 방식으로 키웠음.

연간 동발나무 생산 계획 수행 - 강계강목생산사업소 송학작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8.12.)

- 강계강목생산사업소 송학작업소 일꾼과 노동자는 20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연간 동발나무 생산 계획을 빠르게 완료하였음. 작업소 일꾼과 노동자는 동발나무 운송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였음.

- 백 수십 m^3 의 토량을 처리하고 천연 암반을 깎아 산지 도로에 5개소의 도로를 새로 만들었음. 또한 곡선 도로에 통나무와 돌로 구조물을 쌓고 6개소에 견고한 통나무 다리를 놓았음.
- 그리고 4개소의 산지 나무 터마다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게 도로를 닦아놓았음. 작업소는 동발나무의 상처 기계화 비중을 높여 동발나무 신기 성과를 높였음.

푸른 숲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로동신문 2016.08.24.)

○ 외무성 일꾼은 산림 복구 현장에 투입되었음.

- 외무성 일꾼은 폭우로 피해 입은 산림 지역에 파견되어 산림 실태를 파악하였음. 일꾼은 산림 복구에 나무모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양묘장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보장해 주었음.

통나무 증산 투쟁에 총결기 - 임업부문에서(로동신문 2016.09.12.)

○ 임업성과 함경북도임업관리국의 일꾼은 홍수 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5만 여 m^3 의 통나무를 최단 기간 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각 임산사업소의 일꾼과 노동자는 채벌 구역을 신속히 확정하고 채벌 작업을 진행하였음. 일꾼은 피해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통나무를 운송하기 위한 500여 km의 산지 도로와 100여 km의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 축산업

많은 젖과 가공품을(로동신문 2016.07.05.)

○ 각지 목장과 축산전문협동농장은 전년 대비 원유 1.3배, 유제품 1.2배 증산하였음.

-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은 지리적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의 염소를 늘리고 여러 가지 설비를 현대화하였음. 또한 약초로 약을 만들어 염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였음. 치즈, 버터 등 유제품 생산을 전년 대비 1.2배 늘렸음.
-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은 젖소 우리를 풀 밭 가까이에 건설하여 방목에 유리하게 만들었음. 방목공은 젖소가 새끼를 뱀 때부터 일정한 기간 영양가 높은 풀을 먹이면서 사양 관리에 집중하여 우유 생산을 전년 대비 1.5배로 늘렸음.

현대적인 사료 가공 공장, 육류 가공 공장 건설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로동신문 2016.07.18.)

○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건설되는 사료 가공 공장과 육류 가공 공장 건축 공사가 마감 단계임.

- 이 공장들은 평강군 하주지구의 1만 3,000여 m²의 연면적에 건설되고 있음. 사료 가공 공장은 연간 수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될 예정임. 육류 가공 공장은 냉동, 가공, 포장 등 여러 생산 공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며, 육류 가공 제품과 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 공장이 건설되면 세포지구에서 기른 가축을 다른 기지로 운반하지 않고 현지에서 가공하여 적은 원가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

세포등판에 우량품종의 집짐승이 늘어난다(로동신문 2016.08.03.)

- 세포지구 축산경리위원회는 최근 세포지구 축산 기지에 초식 가축이 10여 만 마리 증가하였다고 밝혔음.
- 세포지구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과학 기술로 종자 문제를 해결하여 우량 품종 가축 생산을 최대한 늘렸음.
- 축산물 생산 단위는 우량 품종의 가축 종자 생산에서 인공 수정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음. 성공 확률이 높은 배자 이식 방법을 도입하여 최단 기간에 우량 가축을 늘렸음. 파울염소와 단미양 종자를 해당 단위에 보내주었음. 이밖에도 가축 수정 확률을 높이는 촉진제를 자체 생산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전례 없는 축산 생산 실적 기록 - 강계돼지공장에서(로동신문 2016.08.03.)

- 강계돼지공장의 일꾼과 노동자는 높은 축산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음. 공장은 새끼 돼지 마리 수가 늘어나며 2개의 실내 우리를 새로 건설하였음.
- 공장의 일꾼은 새끼 돼지 생산과 비육 돼지의 증체율을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 종축 작업반의 사양공은 과학적인 종축 체계를 세워놓고 어미 돼지 마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 육성 작업반의 사양공은 젖 떴 새끼 돼지의 사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음. 작업반은 30여 일 동안 젖 떴 새끼 돼지의 먹성과 면역력을 높여 새끼 돼지 육성률을 95% 이상으로 높였음.
- 비육 작업반은 돼지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배합 사료를 주어 90일 동안 마리당 무게가 100kg 이상 되게끔 키웠음.

여름철 사양 관리에서 중시한 문제 - 금야군 인흥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8.03.)

- 금야군 인흥협동농장은 염소 키우기에 좋은 성과가 있었음.
- 농장으로부터 15리 가량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청년염소분조의 축산기지는 백 수십 마리의 염소를 기르며 매년 수백 kg의 고기와 7톤 이상의 염소유를 생산하고 있음. 이곳 원유 가공 기지에서 생산된 원유는 협동 농장의 탁아소, 유치원, 농장 세대에 공급되고 있음.

○ 농장의 청년염소분조는 겨울나기 우리와 여름나기 우리를 따로 건설하여 염소 사양 관리에 이용하고 있음. 이는 습한 것과 더위를 싫어하며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염소의 생리적 특성을 반영한 사양 관리 방법임.

- 여름나기 우리의 특징은 환기가 용이하여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우리의 벽을 살창 구조로 구성하고 바닥을 땅으로부터 1m 가량 띄워놓고 건설하였음.
- 계절별 우리를 건설한 결과 염소의 증체율이 높아졌고 폐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발생률이 크게 줄었음.

축산을 잘하여 덕을 본다 - 송원군 신양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8.24.)

○ 송원군 신양협동농장은 축산을 잘하는 농장 가운데 하나임.

- 농장은 돼지, 닭, 오리, 염소 등 가축을 많이 길러 매년 많은 축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농장이 돼지를 길러 많은 육류를 생산하는 비결은 토착 미생물 발효 사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임.
- 토착 미생물 발효 사료는 기존의 사료보다 생산 공정이 간단하여 경제적 이득이 큼. 농장은 가축의 분뇨로 매년 농사에 필요한 3,500톤 이상의 유기질 거름도 얻어내고 있음.

현대적인 가공 기지를 건설(로동신문 2016.09.22.)

○ 세포 지역에 현대적인 축산물 가공 기지인 평강고기가공공장과 사료가공공장이 건설되었음.

- 가공 공장이 건설되며 세포 지역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현지에서 가공함으로써 적은 원가로 질 좋은 축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가공 공장은 연간 수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냉동 고기와 육류 통조림, 훈제 제품, 버터, 신젓, 케피르 등을 생산할 예정임.
- 가공 공장은 냉동, 가공, 포장 등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을 흐름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공장을 설계한 과학자는 북한 자체의 기술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여 원료 접수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무인화, 무균화를 이루었음.

○ 평강고기가공공장과 함께 사료 가공 공장도 건설되었음.

- 사료 가공 공장은 가축 기르기에 필요한 배합 먹이를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함. 원료의 정선, 건조, 저장을 비롯한 공정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 공장의 설비의 국산화도 실현되었음.
- 평양기계종합대학의 연구원이 평강고기가공공장 건설과 설비 설계에 큰 역할을 하였음.

◆ 기타 작물

봄 누에고치 생산 최고실적 - 자강도에서(로동신문 2016.07.26.)

○ 자강도의 잠업 농장이 누에고치 생산에서 실적을 내고 있음.

- 도의 잠업부문 일꾼은 2016년 봄 누에고치 생산량이 역대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해 전년 대비 150톤 이상 증산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도의 잠업부문 농업 근로자는 병발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생물 농약, 고농도 유기 영양액을 적극 이용하였음. 그 결과 2016년 병잉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음.

3 농업기반 및 농자재

◆ 토지 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토지 정리 사업 - 삼지연군에서(로동신문 2016.07.15.)

○ 삼지연군은 각 농장의 토지를 기계화 포전, 규격 포전으로 개선하는 토지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토지정리돌격대 양강도여단은 삼지연군의 높은 지대 개간을 시작한지 70여 일만에 400여 정보의 잠관목을 처리하고 800여 정보의 1회 깊이갈이를 진행하였음.
- 돌격대원들은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홍계수, 소백산, 백삼 농장의 거름 수송과 객토, 밭갈이를 도왔음. 해산시, 갑산군대대는 마력이 높은 불도저의 활용하여 개간 작업을 완료하였음. 김형직군과 백암군대대는 깊이갈이에 역량을 집중하여 운수 기자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음.
- 여단은 2016년만에 800여 정보의 땅을 개간하여 기계화 포전, 규격 포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물길 공사, 저수지, 물 보장

하천 바닥파기와 수로 제방, 배수 및 양수장 보수 진행 - 전국 각지에서(로동신문 2016.08.01.)

○ 각지 일꾼과 근로자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수백 km의 중소 하천 바닥 파내기와 수백 km의 수로 제방, 1,000여 대의 배수 및 양수 설비를 보수하였음,

- 일꾼과 근로자는 백 수십만 m^2 의 중소 하천 바닥 흙을 파내어 제방을 쌓고 수십만 m^2 의 장식 공사를 완료하였음.
- 평안남도는 도적으로 50여 km의 중소 하천 바닥 흙을 파내어 제방을 쌓고 수만 m^2 의 장식 공사를 마쳐 수천 정보의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음. 황해남도는 수십 km의 중소 하천 바닥 파내기와 수로 제방, 수백 대의 배수 및 양수 설비보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음.

천성-성산천 자연흐름식 배수갱 공사 추진(로동신문 2016.08.17.)

○ 평안남도 청년 돌격대원은 배수갱 공사를 매일 계획의 150% 이상 수행하고 있음.

- 돌격대원 압질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도입하여 공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일꾼은 자재 보장을 앞세워 착암기, 광차에 대한 수리 정비를 적기에 진행하고 압축기를 막장 가까이에 배치하여 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2

삼지연군의 토지 정리 사업



자료: 로동신문 2016.07.15.

◆ 거름, 비료, 농약

시비 연도 비료 생산 계획 완수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7.20.)

- 2016년 7월 14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꾼과 노동자는 시비연도 비료 생산 계획을 완료하였음.
- 계획 수행 기간 연합 기업소 일꾼들은 모든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 관리를 진행하여 중요 기술 지표를 갱신하고 효율적으로 비료를 생산하였음.

거름 생산에 미생물 이용 -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7.21.)

○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은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풋거름을 생산하였음.

- 농장은 풋거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물을 썩히는데 미생물을 이용하였음.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풋거름은 유효 미생물의 증식과 항생 작용에 의하여 퇴비 속 균이 억제되고 부식산과 가용성 영양 성분 함량이 높아짐.
- 또한 겨울철에 옥수수 짚이나 벧짚 등에 열을 주지 않고 미생물로 유기 물질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실리적임.

수천 톤의 대용 비료 생산 - 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16.08.01.)

○ 평안남도 일꾼과 근로자는 수천 톤의 각종 대용 비료를 생산하여 농작물 비배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평안남도 농촌은 국가의 유기농업 장려 정책에 따라 대용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보장 대책을 세웠음. 칼륨 및 타이타늄 비료, 아미노산 미량 원소 복합 비료, 휴민산 비료 등 여러 가지 비료 생산을 늘려 전년 대비 1.6배 이상의 대용 비료를 생산하였음.

효능 높은 식물성 농약 효과 있게 이용 - 함경남도에서(로동신문 2016.08.01.)

○ 함경남도에는 농약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0여 톤의 식물성 농약을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음.

- 단천시의 협동 농장은 감자 순 착즙액, 썩 우림액 등 수백 톤의 식물성 농약을 생산하여 병충해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있음.
- 양평, 영산 협동 농장은 식물성 농약 생산 기지를 건설하여 감자순과 썩을 기본원료로 하는 농약을 생산하여 적기에 농작물에 분무하였음.
- 금야군은 복합 미생물 비료 공장에 식물성 농약 생산 기지를 꾸려 식물성 농약 생산을 늘렸음.

새로운 식물성 농약을 적극 생산 및 이용 - 배천군에서(로동신문 2016.08.21.)

○ 배천군의 협동 농장은 농작물의 해충 구제에 감자 잎과 줄기, 뿌리를 기본 원료로 하는 식물성 농약을 생산·이용하고 있음. 화학 농약을 쓸 때보다 효율성이 20배 높다고 알려져 있음.

- 배천군에서 생산한 식물성 농약은 2015년 12월에 진행된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배천군이 생산한 식물성 농약은 감자 잎과 줄기까지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료 확보할 때 어려움이 없었음.

앞선 비료주기 방법을 받아들여 - 선천군에서(로동신문 2016.08.21.)

- 선천군의 협동 농장들은 농작물이 불리한 자연 기후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은 벧논에 칼륨 타이타늄 비료와 티오균 비료, 아미노산 미량 원소 복합 비료를 섞어 주었음.
- 석화, 은정 협동 농장이 7월 중순부터 벧 이삭이 여물기 시작하는 시기까지 칼륨 타이타늄비료와 티오균 비료, 아미노산 미량 원소 복합 비료를 섞어 7일에 한 번씩 논에 뿌렸고 그 결과 농작물이 튼튼해졌음.

효능 높은 미생물 비료 생산 기술을 개발 도입(로동신문 2016.08.21.)

-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의 연구원이 개발한 새로운 미생물 비료인 남조류 발효 퇴비 생산 기술이 각지 농업 생산 단위에 도입되어 효과를 내고 있음.
- 연구원은 지력을 높이기 위해 퇴비를 개발하였으며 발효 미생물을 낱알짚에 섞는 미생물 비료 생산 방법임.
- 대학의 연구원은 발효 퇴비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기존의 비료보다 유기질 발효 촉진 능력과 항균 능력이 높은 균을 선발하였음. 대학이 개발한 발효 퇴비가 각지 농촌의 농작물 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4 기타 동향

많은 다시마를 수확 -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로동신문 2016.07.13.)

- 신창수산협동조합은 여름철 어획과 함께 다시마 수확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음.
- 수산협동조합에서는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다시마 풍년을 이뤘음. 일꾼과 양식공은 다시마 수확에 집중하여 연간 다시마 생산 계획을 1.3배 이상 초과 수행하였음.
- 협동조합은 10여 정보의 다시마 양식장에 양식 시설물을 바닷물 흐름과 수평으로 설치하여 여러 기후 조건에서도 시설물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음.
- 일꾼과 양식공은 2016년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하여 다시마 생산 계획을 매일 1.3배, 최고 1.5배 이상 달성하였음.

장마철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 강원도에서(로동신문 2016.07.14.)

○ 강원도 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당원은 홍수와 폭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 강원도는 연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와 탄광, 광산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장마철 생산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음. 도의 모든 시, 군의 일꾼은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웠음. 특히 농장은 장마철 벼와 옥수수가 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였음.
- 문천시와 안변군을 비롯한 도의 시, 군은 농경지가 폭우에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와 도랑을 정비하고 양수 설비를 모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을 더욱 빈틈없이(로동신문 2016.07.31.)

○ 2016년 7월 22일부터 장마기에 들어서면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렸음.

- 평안북도의 7월 23일 하루 강수량은 276mm를 기록하였음. 기상 예보에 의하면 앞으로 8월 중순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폭우와 센 바람, 벼락과 같은 재해성 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농업과 건설 부문, 탄광, 광산, 철도 운수 부문 등 장마에 향을 많이 받는 부문은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음.

-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는 밭머리 도랑과 사이 도랑을 재정비하여 물이 밭에 고이지 않게 하였음. 여명거리 건설장을 비롯한 주요 대상 건설장은 건설용 자재와 설비가 폭우에 의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그림 3

북한의 주민소비품전시회



자료: 로동신문 2016.08.05.

전국 주민소비품전시회 개막(로동신문 2016.08.04.)

○ 2016년 8월 3일, 전국주민소비품전시회가 평양 제2백화점에서 개막되었음.

- 전시회에는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 기업소, 가내 작업반이 생산한 의류, 잡화, 식료품 등 1,200여 종에 13만여 점의 소비품이 출품되었음. 특히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가 자기 지방의 원료, 자재로 만든 초물 공예품과 골뱅이 공예품이 인기를 끌었음.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 추진(로동신문 2016.08.07.)

○ 혜산과 삼지연을 잇는 철길의 노반, 철다리, 소형 구조물 공사가 마감 단계임. 터널 확장과 피복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최근 혜산-삼지연철길건설여단 철도성연대는 전주, 콘크리트 침목 현지 운반을 시작하였음. 철길건설지휘부는 노반과 철다리, 소형 구조물 공사 등을 진행해 2016년 중으로 레일 놓기를 시작할 예정임.
- 반면 철도 운수 부문의 수송 일꾼은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에 필요한 화물 수송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있음.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요구르트 생산용 종균의 국산화 실현(로동신문 2016.08.22.)

○ 북한의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가 요구르트 생산용 종균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음.

- 이번에 국산화된 요구르트 생산용 종균은 우유 또는 염소유를 발효시켜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요구르트를 만드는 균 제품임.
- 연구소는 한 달 만에 종균 생산에 필요한 진공냉동초원심분리기, 냉동진공건조기, 진공포장기 등 각종 시설·설비를 갖췄음.
- 종균 생산 기지에서 진공 포장된 건조 제품 형태로 생산된 요구르트 생산용 종균은 여러 단위에 도입되어 호평을 받고 있음. 요구르트의 품질이 개선되어 기존 제품에 비해 비하여 리신 함량이 1.26배, 필수 아미노산이 1.5배 높아졌음.

연간 소금 생산 계획 넘쳐 수행 - 원산제염소에서(로동신문 2016.09.08.)

○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일꾼과 노동자는 모든 면적의 염전에 타일을 깔아 소금 생산량과 품질을 높였음.

- 지휘부의 일꾼은 소금 생산에 필요한 펌프와 전동기 등을 미리 마련하여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소금 생산 계획 초과 달성하였음.

북한식 대기 환경 측정기 개발(로동신문 2016.09.08.)

- 의과학원 환경위생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의 연구단은 대기 환경 측정기(가스, 먼지)를 제작하였으며, 소형화, 경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위생 방역 및 긴급 치료 사업에 진입 - 보건성에서(로동신문 2016.09.12.)

- 보건성 및 함경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지휘부는 긴급 협의회를 열고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위생 방역 사업과 홍수로 파괴된 보건 기관들을 복구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진행하였음.
 - 국가위생검열원과 치료 예방 부문, 약무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일꾼과 의사는 홍수 피해 현장으로 파견되었음. 파견된 일꾼은 피해 지역 내 보건 기관의 피해 정형과 의료 설비, 의약품의 보유 상태를 긴급히 파악하고 비상 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보건성의 지휘 아래 피해 지역 내 전체 인구수에 해당하는 식수와 소독약이 공급되고 있음. 2016년 9월 5일, 회령시와 온성군, 연사군, 무산군에 예방약에 공급되었으며 경흥군과 경원군 등에서는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이루어졌음.

식량을 실은 열차가 북부 피해 지역으로 떠났다(로동신문 2016.09.13.)

- 함경북도 북부 홍수 피해 지역으로 식량을 실은 열차가 평양을 출발하였음.
- 성, 중앙기관 책임 일꾼은 홍수가 발생한 이후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피해 주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웠음.
 - 체육성, 대외경제성, 평양가금생산국의 일꾼과 당원은 피해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 소식이 전해진 후 이틀 만에 식량을 비롯한 많은 지원 물자 피해 지역으로 보냈음.

농업출판사창립 7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로동신문 2016.09.26.)

- 농업출판사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가 2016년 9월 25일에 진행되었음.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보고회는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 일꾼에게 축하문을 보냈음.
 - 축하문은 출판사의 기자, 편집원이 감자 농사 혁명 방침, 두벌 농사와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 확립,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등을 해설하는 도서와 잡지, 과학고를 편집하여 발행한 것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강조하였음.

국내매체 보도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경제일반

◆ 경제일반

2015년 북한의 GDP, 전년 대비 1.1% 감소

○ 북한 경제가 2015년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극심한 가뭄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되었고, 국제 사회 제재로 교역도 축소된 것이 경제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되었음.

- 한국은행은 '201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2015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다고 밝혔음. 이는 2007년, -1.2%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임.

- 북한은 2009년 -0.9%, 2010년 -0.5% 성장률을 나타낸 뒤 2011년 플러스로 돌아섰음.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을 본격화한 2012년 이후에도 1%대 꾸준한 성장률을 이어갔음.

○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4조 5,000억 원으로 한국의 45분의 1수준으로 집계되었음.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9만 3,000원으로 2014년(138만 8,000원)보다 늘었음.

세계일보, "대북 제재 통하였나... 북한, 2015년 GDP 1.1% 감소", 2016.07.22.

북한의 경제 감찰 조치에 따른 신흥 자본가 위축 및 북한 주민 탈북 증가

○ 북한 당국의 대대적인 경제 감찰로 인해 돈주(신흥 자본가)의 몰락되고 그 여파로 북한 주민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검열(경제 감찰)로 인한 중산층(돈주)의 몰락은 장마당 경기를 위축시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2016년) 5월 말 국가안전보위부가 '109상무(합동검열그룹)'를 앞세워 불법 영상물과 불법도서 검열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작하였다"며 "이에 질세라 (2016년) 6월 초부터 검찰과 인민보안성이 전국적 규모에서 '경제 감찰'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검찰과 인민보안성이 합동으로 진행한 경제 감찰은 국가 자금을 횡령한 자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선언해 공장기업소 간부들을 떨게 만들었다"고 언급하였음. 그는 "특히 회령시의 경우 거의 모든 인민반장과 동사무소 직원들, 많은 공장기업소의 간부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중 인민반장 16명이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 양강도의 소식통도 "양강도 혜산시에서만 국가보위부와 검찰, 인민보안부의 검열 경쟁으로 체포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주민들은 300명이 넘는다"고 강조하였음.
- 연합뉴스, "북한 경제 감찰에 돈주들 몰락하고 주민 탈북 늘어나", 2016.08.02.

북한의 시장 400여 개로 확인

- 북한 시장(장마당)이 김정일 시대 200여 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400여 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장마당은 2010년, 200여 개에서 현재 400여 개로 증가하였음.
- 조선일보, "북한 장마당 5년 새 2배로", 2016.09.21.

2015년 북한의 1인당 GDP, 1,000달러 상회

-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를 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 다만, 이는 북한의 대략적인 소득 수준을 추정하는 모형을 통해 나온 결과여서 1년 단위의 정확한 북한 GDP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북한의 2015년 1인당 명목 GDP 값은 1,013달러로 2014년(930달러)보다 증가하였음. 이 추정 모델 값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1,000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987년 986달러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2000년대 초 600달러 중반까지 떨어졌음.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제가 개선되면서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2015년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농업 생산량은 가뭄의 영향으로 악화하였음. 식량농업 기구(FAO)가 발표한 2015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보면 477만 8,000톤으로 전년(534만 7,000톤)보다 10.7%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물가의 경우에는 화폐 개혁 이후 불안정한 모습에서 다소 안정되고 있음. 2015년, 북한의 쌀 가격은 1kg당 5,200원으로 전년(4,925원)보다 5.6% 올랐음.
연합뉴스, "북한, 처음으로 1인당 GDP 1천 달러 넘겨", 2016.09.29.

◆ 대외무역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석탄 수출량 감소

- 국가정보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의 석탄·무기류 수출량이 각각 40%, 88% 감소하였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국정원은 북한이 석탄·무기류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변경·매각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석탄·철광석 수출 때 유엔 제재 예외사항인 '민생 목적'이란 명분을 붙이기도 한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국정원은 금융 분야에선 대북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하였음.
-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과 관련해 북한이 평년의 3배가 넘는 1,500여척에 조업권을 판매해 3,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음.
한겨레, "국정원, 대북 제재로 북한 석탄 수출 40% 급감", 2016.07.01.

북한, 중국에서 탄광용 양수 설비 대량 구입

- 북한이 침수된 탄광·광산을 복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양수 설비를 대량 수입하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북한-중국 무역 상황에 밝은 한 소식통은 RFA와 통화에서 "최근 북한 중앙기관 무역회사들이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탄광·광산용 양수동력 설비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 북한은 앞서 2011년과 2012년 장마철 당시 폭우가 내려 수십여 개 탄광이 침수됐다고 보도한 바 있음.
 - RFA는 북한이 석탄 생산을 늘리려는 것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민생관련 품목'으로 수출이 가능한 석탄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전하였음.
- 연합뉴스, "'북한, 중국서 탄광용 양수설비 대량 수입'〈RFA〉", 2016.07.01.

북한, 중국에게 조업권 판매

- 2016년, 북한이 자국 내 조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에서 3,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음.
-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2016년) 평년보다 3배 많은 1,500척 규모의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고 밝혔음.
- 조선일보, "북한, 340억 원 받고 中에 어업권 팔아", 2016.07.02.

북한 선박 10대 중 9대는 중국행인 것으로 확인

- 대북 제재가 넉 달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박 대부분이 중국을 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 사이 선박자동식별장치인 AIS를 통해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선박은 모두 86척이라고 VOA는 전하였음.
- 북한 내부에 정박하거나 목적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한반도 근해를 운항하는 선박, 해외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선박을 제외하면 총 74척의 선박이 집계되는데, 이 중 67척의 선박의 출발 및 도착지가 중국 항구로 나타났음.
-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의 자료와 지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 항구에 항적이나 입항 기록을 남기거나, 중국 근해에서 포착된 선박의 비율은 90%에 달하였음
- 선박들이 다녀간 중국 내 항구는 모두 18곳으로 확인되었음.
- 이 중 가장 많은 선박이 머문 곳은 다롄항으로, 모두 10척의 선박이 정박하였음. 옌타이 항에 8척, 룡커우 항과 웨이하이 항에 각각 6척, 련윈강항과 친황다오항에 5척씩의 북한 선박이 다녀갔음.
- 징강항과 르자오항, 평라이항, 란산항, 단둥항 등에도 북한 선박이 정박하였음.
- 국민일보, "'북한 선박 10대 9대 중국행' 다롄항, 옌타이항 순", 2016.07.03.

북한, 여명거리 건설 자재 중국에서 수입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2016년 4월 착공된 평양 여명거리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평안북도 소식통은 방송에 "여명거리 공사는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건설 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으므로 김정은의 의도대로 금방 완공될 공사가 아니다"라며 "자재 수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음.

- 북한은 외부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 철광석을 무산과 인접한 남평세관을 통해 은밀히 중국으로 들여보내지만, 건설 자재는 무산과 멀리 떨어진 평안북도 신의주를 거쳐 들여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하였음.

○ 여명거리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영흥사거리까지 동서로 난 도로에 건설 중인 새로운 시가지로, 이 구역에 김일성종합대 교육자들과 과학자, 연구자를 위한 주택과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임.

연합뉴스, "북한 여명거리 건설자재 中서 수입", 2016.07.06.

2016년 상반기 북중 간 무역 동향, 랴오닝성 증가-지린성 감소

○ 중국 내 대표적 대북 교역 창구인 중국 랴오닝성의 2016년 상반기 대북 교역량은 늘어난 반면 지린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와 연결되는 중국 랴오닝성의 2016년 1분기 대북 무역액은 5억 8,2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코트라 선양무역관이 분석한 2016년 1분기 랴오닝성의 대북 수출은 3억 2,437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2억 5,833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6% 늘었음.
- 랴오닝성의 대북 수입은 의류가 1억 5,21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9% 증가해 전체 수입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음. 그러나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 자료 처리 기계와 화물 자동차 등 상위권 수출 품목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음.

○ 한편, 북한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북도와 인접한 중국 지린성의 2016년 1분기 대북 교역은 1억 7,5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음.

- 지린성의 대북 수출은 1억 95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지만, 수입은 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8% 감소하였음.
- 티셔츠와 메리야스 편물, 조개, 대두유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작년과 비교해 증가하였으나,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의 수출이 급감하였음.
-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의류 제품과 수산물, 철광석 등 주력 수입품목이 작년과 비교해 모두 두 자리 수 이상 감소해 전반적인 수입 감소세를 이끌었음.
- 지린성의 철광석 수입은 2015년 약 42.6% 감소한 데 이어 2016년 1분기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약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컷뉴스, "中 올 상반기 대북 교역..."랴오닝성 ↑, 지린성 ↓", 2016.07.18.

북한, 중국에 돼지고기 밀수출 사례 확인

○ 북한 밀수꾼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밀수출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양강도 소식통은 RFA에 "북한의 돼지고기 1kg(두 근) 값은 10위안(1,690원)으로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시세 차를 이용해 북한 변경지역 주민(밀수꾼) 중에는 북한의 돼지고기를 중국에 밀수출해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북한, 中에 돼지고기 밀수출(RFA)", 2016.07.19.

북중 간 왕복 선박의 주요 운반 품목은 광물인 것으로 확인

○ 북한과 중국을 왕복하는 제3국 선박 대부분이 광물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VOA는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북한 남포항에서 2회 이상 포착된 제3국 선박은 모두 19척이었다고 밝혔음.
- VOA는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을 통해 이들 선박이 머문 항구의 모습을 분석한 결과 선박이 정박한 곳에는 어김없이 검은색과 붉은색 광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전하였음.
- 중국과 북한의 2016년 6월 교역액은 2015년 6월과 비교해 약 8.3% 증가하였으며, 무연탄과 철광석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 1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였음.
-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석탄, 철광석, 금 등의 북한 광물 수입을 막았지만, 민생 목적인 경우는 예외로 하였음.

연합뉴스, "북한-中 왕복 제3국 선박의 주요 운반 품목은 광물", 2016.07.28.

유엔 비(非)제재 대상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 증가

○ 2016년 상반기 들어 북한이 아연괴 등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북한자원연구소(소장 최경수)는 '2015년 북한 주요 지하자원 생산량 추정과 2016년 상반기 북중 지하자원 교역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중국에 유엔 제재대상 품목 외에도 마그네시아, 아연괴 등 다양한 지하자원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음.
- 비 제재대상 품목 중 중국 수출이 많은 연광, 아연광, 아연괴, 마그네시아, 동광 등 5개 품목의 2016년 상반기 수출액은 7,821만 달러로 2015년 같은 기간의 5,205만 달러보다 50.3% 증가하였음.

- 특히 아연괴(14만 달러→1,880만 달러), 아연광(590만 달러→1,702만 달러), 마그네시아(950만 달러→1,144만 달러) 순으로 증가 폭이 컸음. 반면 연광(2,825만 달러→2,313만 달러)과 동광(826만 달러→782만 달러)의 수출액은 감소하였음.
 - 2016년 상반기 석탄 등 유엔 제재 대상 지하자원 7개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5억 4,723만 달러로 2015년 상반기의 6억 4,915만 달러보다 15.7% 감소하였음. 하지만 철광석, 티타늄 등의 상반기 수출액은 제재대상 품목임에도 오히려 각각 3.9%, 36.9% 증가하였음.
- 연합뉴스, "북한, 올해 상반기 유엔 비제재 대상 지하자원 대중수출 급증", 2016.07.30.

2016년 6월 북중 교역액, 증가 추세로 전환

○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3개월 만에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음.

-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6월 무역 총액은 5억 37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억 6,042만 달러보다 9.4% 증가하였음.
- 2016년 6월 교역액의 증가는 중국의 대(對)북한 수출액이 2억 8,807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5% 급증한 영향이 컸음.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억 1,570만 달러로 소폭(0.7%) 감소하였음.

○ 북한-중국 교역액은 중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결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2016년 3월만 해도 북한-중국 교역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하였지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4월 9.1%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5월에도 8.2% 줄었음. 하지만 6월에는 중국이 대북 수출량을 급격히 늘려 교역량이 증가하였음.

동아일보, "中, 느슨해진 대북 제재... 교역 3개월 만에 증가세", 2016.08.09.

나진-상하이 화물 운송 재개

○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북한 나진항과 중국 상하이(上海)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 사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되었음.

-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운항업무국은 중국 국적 화물선이 2016년 8월 6일 목재 1,000톤을 싣고 나진항을 출발해 2016년 8월 9일 상하이에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밝혔음.
- 중국 훈춘에서 출발해 나진항을 거쳐 상하이로 화물을 운송하는 항로는 2015년 6월 11일 정식으로 개통됐으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통과되고 나서 2016년 3월 18일 이후 중단된 바 있음.

연합뉴스, "북한 나진-中 상하이 화물운송 5개월 만에 재개", 2016.08.10.

북한, 중국에 동해 조업권 판매

- 대북 제재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조업권도 중국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7,500만 달러(약 820억 원)를 받고 중계 무역 회사를 통해 중국에 동·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하였음. 이로 인해 현재 동해에서 1,000여 척, 서해에서 1,500여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동해 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유관 기관과 (북·중 간 조업권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앞서 국가정보원은 2016년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 달러(약 330억 원)를 받고 평년보다 3배나 많은 중국 측 어선 1,500여 척에 조업권을 줬다고 보고하였음.
 - 북·중 양측은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하였지만 NLL 인근 수역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서해 이어...동해어업권까지 中에 넘긴 김정은", 2016.08.11.

2016년 4월 북한-EU 교역액, 전월 대비 감소

- 유엔의 대북 제재로 2016년 4월 북한과 유럽연합 (EU)의 교역액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4월, 유럽연합과 북한의 교역액은 약 136만 달러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전월인 3월과 비교해 무려 66.3%가 줄었음. 북한의 대 유럽연합 수출은 약 31만 달러로 76.2%, 수입은 약 100만 달러로 61.4% 줄었음.
 - 2016년 1월에서 4월까지의 누적 교역액은 약 1,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감소하였음.
 - 교역 실적을 항목별로 보면 북한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보일러-기계류로 약 57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어 의약품이 약 11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북한의 대 유럽연합 수출품 중에서는 무기 화학제품이 약 1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기기-부품이 5만 5,000달러로 2위를 기록하였음.
 - 2016년 4월 북한과 가장 교역액이 많았던 유럽연합 회원국은 독일로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약 91만 달러였으며, 북한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수출한 나라는 크로아티아로, 약 16만 달러였음.
- 노컷뉴스, "유엔 대북 제재 영향, EU-북한 교역액 감소", 2016.08.16.

2016년 상반기 북한-미국 교역, 전년 대비 99% 감소

○ 2016년 상반기 미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99% 감소하였음.

-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국과 북한 교역액이 2만 3,000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2015년 같은 기간 북미 교역액은 299만 1,000달러였음.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하였음. VOA는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 중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실험실 연구 장비와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라고 전하였음.

뉴스1, "올해 상반기 미-북 교역, 사실상 전무", 2016.08.24.

사상 최대 수준인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

○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지만 2016년 8월 북한산 석탄의 월간 중국 수출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석탄 단가를 낮추면서 중국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임.

- 석탄은 중국이 발표한 제재품목 중 하나이지만 민수용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 금액 가운데 40% 가까이 차지함.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對)중국 2016년 8월 석탄(HS코드 기준 27011100) 수출 물량은 246만 톤으로 중국-북한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5년 대비 35.0% 증가한 수치이며 종전 월간 최대 물량은 2016년 3월 234만 톤이었음.

○ 반면 석탄의 톤당 단가는 2015년 1월 64.96달러(약 7만 1,000원)에서 2016년 8월 45.55달러로 크게 낮아졌음. 8월 중국 전체 석탄 평균 수입 단가인 톤당 49.3달러보다 7.6% 저렴했음.

○ 석탄 수출 물량이 늘어나자 석탄 총 수출액도 급증하였음.

- 2016년 8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1억 1,200만 달러(약 1,230억 원)로 전년 대비 27.3%나 급증하였음.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8월 총 수출액도 2억 8,600만 달러(약 3,140억 원)로 전년 대비 16.4%가 늘었음.

○ 북한의 2016년 8월 중국 철 수출액도 190만 달러로 전년보다 61.8% 늘어났음. 철광석도 중국이 2016년 8월 660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전년보다 14.3% 증가하였음.

- 북한의 2016년 8월 대중국 총 수입액은 3억 3,700만 달러(약 3,700억 원)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4% 늘어났음.

연합뉴스, "대북 제재에도 북한산 석탄 中 수출물량 사상 최대", 2016.09.29.

◆ 대외교류 및 경제협력

시진핑, 김정은에게 "전통적 친선협조관계 발전" 축전 발송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친선 관계 발전을 강조하였음.

- 조중양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문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시진핑 주석은 "조선 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국가 건설과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음.

- 앞서 김정은은 2016년 6월 30일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공산당 창건 95돌 기념 축전을 보냈음.

연합뉴스, "中 시진핑, 북한 김정은에 '전통적 친선협조관계 발전' 축전", 2016.07.01.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이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특사 일행 접견

-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다음날인 2016년 6월 30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특사 일행을 접견하였음. 김정은이 쿠바 특사 일행을 면담하는 내용의 기록 영화가 제작돼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되었음

뉴스1,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외교 행보' 시동...中·쿠바부터", 2016.07.03.

푸틴, 북한 김정은에게 축전 발송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협력관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2016년 7월 5일 보낸 축전에서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해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은 이어 "국가 최고 직책에서 당신의 활동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협조를 확대하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푸틴 러 대통령, 북한 김정은에 축전..."대화·협조 확대 기대", 2016.07.06.

중국 단둥시, 북한 관광 상품 판매 개시

○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2016년 7월 9일부터 반나절 일정의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개시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VOA는 "단둥시는 지금까지 번거로웠던 북한 입국 절차를 간략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면서 "여권과 입국사증이 필요 없고,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통행증을 만들어준다"고 전하였음. 단둥시는 관광 상품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단둥을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VOA는 덧붙였다.

- VOA는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였지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관광 등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中 단둥시, 9일부터 반나절 일정 북한 관광 상품 개시", 2016.07.06.

북한-중국, 우호 조약 체결 55주년 맞이 축전 교환

○ 중국 정부는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약칭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중국과 북한이 축전을 교환하였다고 밝혔음.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조약체결 55주년을 기념하는 활동이나 북·중 고위층 간의 상호 방문 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조(중국과 북한) 쌍방은 이미 상호 축전(발송) 방식으로 (조약체결 55주년을) 기념하였다"고 대답하였음.

- '양측 지도자 사이에서도 축전 교환이 있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대변인은 축전 교환이 다양한 레벨에서 이뤄졌음이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中-북한, 우호조약체결 55주년 맞아 축전 교환(종합)", 2016.07.11.

압록강철교, 보수 작업 완료 후 개통

○ 보수 작업을 이유로 통행이 중단됐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의 압록강철교(조중우의교)가 열흘 만에 정상 개통되었음.

-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을 통해 "지난달(2016년 6월) 23일 북중 간 무역 거래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단둥-신의주 압록강철교에서 도로 파손이 발견돼 약 열흘(7월 23일~8월 1일) 동안 세관업무를 중지하고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보수공사 지점이 북한 측 위치였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며 "현재 압록강철교를 통해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북한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전하였음.

뉴스1, "압록강철교, 보수작업 마치고 열흘 만에 개통", 2016.08.02.

북한, 파리기후협정 가입

○ 북한이 2016년 8월 1일 기후 변화에 관한 협정인 '파리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음.

- 통신은 이날 "협정 가입 문건이 수탁자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기후 변화 문제 해결과 지구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파리기후협정 가입..."유엔에 가입문건 제출", 2016.08.03.

북한-중국 합작 된장술공장, 북한 나선서 가동 시작

○ 북한과 중국 간 합작으로 건립된 소주 공장이 북한 나선시에서 가동에 들어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RFA는 중국 길림신문을 인용하여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기업과 북한 나선시가 합작한 된장술 공장이 지난달(2016년 7월)부터 나선특구에서 조업에 들어갔다"고 전하였음.
- RFA에 따르면 된장술은 콩을 발효시킨 된장을 주원료로 생산된 전통 소주로 출시 3년 만에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소주시장 60% 이상을 석권하였음.
- RFA는 "북한이 그동안 체코 등 서구 국가로부터 맥주 양조 시설 등을 합작 형태로 유치한 사례는 있지만 전통 소주 합작 생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음.

뉴스1, "북중 합작 된장술 공장, 북한 나선서 가동 시작", 2016.08.06.

앙골라,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 아프리카 국가 중 북한과 4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앙골라가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앙골라는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 외교관 2명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였음. 앙골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2006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접수한 이래 처음임.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앙골라가 처음으로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는 2016년 8월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람 됐고, 보고서는 북한으로의 광산물 수출 및 항공유 판매 금지, 북한을 오가는 화물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색 의무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음.

연합뉴스, "'40년 북한우방' 앙골라, 첫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종합)", 2016.08.06.

북한, 2017년 유도 세계주니어선수권 유치

- 국제유도연맹(IJF)은 2016년 8월 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총회를 열고 2017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북한 평양을 결정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2017년 유도 세계주니어선수권 평양 유치", 2016.08.06.

나미비아, 북한과 교류를 지속해나갈 것

-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아프리카 나미비아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나미비아와 북한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안자바 대사는 "나미비아는 외교관계에서 비동맹 정책을 채택하고 유지하며 국제법과 조약 의무를 중시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하였음.

-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는 "나미비아는 핵 비확산과 핵실험 (금지), 군축에 관한 목표를 지지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런 원칙을 옹호할 것을 권하지만 동시에 모든 나라가 평화와 개발을 목적으로 핵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역시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하였음.

-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나미비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자국 내 북한 기업들의 활동을 종료키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뉴스1,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한과 교류 계속해나갈 것'", 2016.09.08.

◆ 북한 시장 관련

중국의 금융 제재로 인한 북한 시장 내 수입상품 가격 급등

- 랴오닝성 단둥의 대북 소식통은 "중국의 금융 제재로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각종 물품의 가격이 이전보다 50% 이상 올랐다"고 말하였음.

- 소식통은 중국 은행을 통한 달러 송금이 막히면서 중국 무역상들이 '대금 연체료'와 '위험 부담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과거 북한 무역상은 10만 달러어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거래가 성사되면 곧바로 중국 측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였음. 그러나 지금은 평양에서 현금을 들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제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것임.

- 송금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물물 교환' 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조선일보, "해외송금 막힌 북한... 중국産 수입價 50% 급등", 2016.07.06.

북한, 노선 열차 요금 인상

○ 북한이 2017년 7월 1일을 기해 모든 열차 노선의 요금을 10배 가까이 인상하였다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였음.

-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과 혜산 노선의 경우 기존 국정 가격 열차 요금이 북한 돈 800원에서 8,000원으로 증가하였음.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요금인상 포치(공지) 내용을 모든 역사에 붙여 주민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북한, 모든 노선 열차 요금 10배 가까이 인상", 2016.07.12.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내 중국산 공산품 가격 급등

○ 유엔이 2016년 3월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 내 중국 공산품의 가격이 2016년 6월부터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시장 물가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의류와 신발, 섬유 잡화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하였음.
- 중국과 가까운 함경북도의 한 도시의 경우 여성용 장화는 2016년 4월, 73위안에서 100위안으로 올랐고, 남성용 장화도 77위안에서 120위안으로 상승하였음. 어린이용 운동복은 최대 50위안에서 80위안으로 남성용 점퍼도 150위안에서 220위안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 세제도 200g 기준 7~9위안, 400g은 15위안, 비누는 1개 3~5위안에 거래되었음.
-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소비하는 공업품은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한다"면서 "공산품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하였음.

노컷뉴스,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중국 공산품 값 급등", 2016.07.22.

유엔 제재 시행 4개월 경과 이후 북한 물가·환율은 안정세 유지

○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양강도 혜산시와 함경북도 청진, 그리고 제3의 도시의 시장 물가를 조사한 결과 "쌀값 1kg은 7월 중순 현재 5,000원선으로 경제 제재 이전보다 약 20% 올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하였음.
- '데일리NK'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이달 초 조사에서도 쌀 1kg에 평양은 5,100원으로 지난 달(2016년 6월) 초 보다 150원이 올랐고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5,170원으로 270원이, 양강도 혜산시는 5,500원으로 650원이 올랐다고 보도했음.

- 옥수수 1kg의 가격도 1,000원 정도로 20~30% 상승하였지만, 북한에서는 매년 6~8월은 식량이 가장 모자라는 시기인 데다 실제로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6년 7월 중순 기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도 1리터에 7~8,000원으로 2016년 5월 중순보다 올랐음. 2016년 7월 중순 기준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1,290원~1,310원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7월 초 '데일리NK'가 조사한 달러 환율은 평양은 1달러당 8,325원으로 75원이 내렸고 신의주는 8,310원으로 107원, 혜산시는 8,320원으로 195원이 각각 내렸음.
- 노컷뉴스, "유엔 제재 4개월째, "북한 물가·환율 안정세 유지"", 2016.07.23.

북한 시장에 쇠고기 등장

- 소의 도살을 엄격히 금지하는 북한에서 최근 쇠고기가 거래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였음.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거주자의 한 주민은 "요즘에는 장마당(북한의 사경제)에서 쇠고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며 "우리(북한산) 쇠고기는 농촌에서 부림소(짐을 운반하거나 밭을 갈기 위해 기르는 소) 역할을 할 수 없는 늙은 소를 잡은 것이라 중국 쇠고기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고 RFA는 밝혔음.
 - 양강도 혜산의 소식통은 "중국산 쇠고기는 대부분 밀수를 통해서 들여오고 있고, 우리(북한산) 쇠고기는 부림소 역할을 할 수 없는 늙은 소를 농촌기관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살해 장마당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고 RFA는 전하였음.
 - RFA는 원래 북한은 소의 도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소를 도살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음.
- 연합뉴스, "'북한 장마당에도 쇠고기 등장...늙은 소 도축한 듯'", 2016.07.29.

◆ 기타

미국, 대북 제재 리스트에 김정은, 황병서 포함

- 미국 정부가 2016년 7월 6일(현지 시간) 김정은과 황병서를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음.
-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하였음.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제재 역사상 인권 침해만을 이유로 국가 원수를 단독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음.

- 다른 13명은 이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이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이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경찰총국 5국장, 오종국 경찰총국 1국장임. 8개 기관은 국무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경찰총국임.

동아일보, "美, 대북 제재 리스트에 김정은 첫 포함", 2016.07.07.

북한, 식물류 800여 종 수록한 도서 출판

- 북한이 세계 여러 나라와 해외 동포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선물한 식물을 수록한 도서를 새로 출판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음.

- 도서의 첫 부분에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대한 내용이 편집돼 있으며, 북한 식물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한 800여 종의 선물 식물이 올라있음.
- 선물을 한 나라와 단위, 사람 이름과 직위가 밝혀진 도서는 식물 이름, 과명, 원산지, 형태학적 특징, 생태학적 특성, 번식, 재배, 이용에 대해 기록돼 있다고 통신은 설명하였음. 선물 식물의 전경과 함께 일부 꽃, 열매를 소개하는 사진을 포함하였음.

노컷뉴스, "북한, 김일성·김정일이 받은 선물, 식물류 800여종 수록한 도서 출판", 2016.07.10.

미국 CIA, 북한 인구 발표(2,498만 명)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 인구는 2,498만 명으로 전 세계 238개국 중 51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밝혔으며 인구 증가율을 0.53%로 수정하였음.

- 25세에서 54세 연령층의 인구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고 0살에서 14세 사이의 인구가 21.21%, 15세에서 24세 연령층은 전체 인구의 16%로 그 뒤를 이었음. 65세 이상 인구도 남자 85만 명, 여자 1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9%에 달해 10명당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되었음.

- 2016년 북한의 인구는 2015년 집계보다 약 10만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량은 전체 조사국 중 157위로 나타났음.

-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14.5명으로 134위였고 사망률은 1,000명당 9명 이상으로 전체 조사 대상국 중 64번째였음.

노컷뉴스, "美 CIA, 북한 인구 2천 498만 명..."세계 238개국 중 51번째", 2016.07.12.

독일, 주독 북한 대사 후임 임명 동의 거부

○ 독일 정부가 북한이 주(駐)독일 북한 대사 후임으로 요청한 신임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후임 임명 동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음이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방송은 "북한이 리시홍 주독일 북한대사 후임으로 요청한 신임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독일 정부가 최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음"이면서 "이 때문에 교체돼 평양으로 돌아갔던 리 대사가 궁여지책으로 부랴부랴 베를린으로 되돌아와 대사 업무를 수행 중인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음.

○ 앞서 독일 외교부는 2016년 4월 말 리시홍 대사가 교체돼 이미 독일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독일, 주독 북한대사 후임 임명 동의 거부(RFA)", 2016.07.14.

북한 황해남도, 소금 생산 위한 지하 초염수 탐사작업 진행

○ 북한 황해남도가 경제적 가치가 큰 유망한 지하 초염수 탐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하였음.

- 북한 대외용 매체인 '메아리'는 "황해남도탐사관리국의 일꾼과 노동자가 연백제염소를 비롯한 도내 해안 일대에서 지하 초염수의 매장지를 찾아내기 위한 탐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전하였음.

- 지하 초염수는 바닷물에 비해 소금 농도가 높은 지하수로 이 물로 소금을 생산하면 천일제염에 비해 소금을 2~5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

노컷뉴스, "북한 황해남도, 소금생산 위한 지하 초염수 탐사작업 진행", 2016.08.02.

캐나다, 북한 여행 회피국으로 재지정

○ 캐나다 외교부는 2016년 7월 14일 갱신된 여행 경보를 통해 북한을 여행 회피국(Avoid all travel)으로 재지정하고, 북한 방문에 '극도의 위험'(extreme risk)이 따른다고 경고하였음.

- 캐나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억압적인 정권 탓에 여행객들의 안전이 불확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고 RFA는 전하였음.

연합뉴스, "캐나다, 북한 여행 회피국으로 재지정", 2016.08.02.

북한 국가과학원, 식물분류명사전 편찬

○ 북한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에서 식물분류명사전(포자식물편)을 집필 편찬하였다고 북한 매체가 전하였음.

- 이번에 출간한 사전에는 학명과 함께 5개 어종에 속하는 약 5만 2,000개의 포자식물명이 반영됐으며, 포자식물인 이끼고사리류, 균류, 마름류 등으로 분류돼 있음.
- 연구 집단은 식물학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학명과 서로 다른 민족어로 된 식물명을 북한과 외국의 문헌자료들에 기초해 확정하였으며, 지금 식물학부문과 과학연구, 교육부문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북한 국가과학원, 식물분류명사전 편찬", 2016.08.24.

북한, 대동강 맥주축제 개최

- 북한이 첫 맥주축제인 '대동강 맥주축제'를 2016년 8월 12일 평양 대동강 부두와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회에서 개막하였음. 이 축제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2016년 9월 9일까지 계속할 예정임.

조선일보, "북한 '대동강 맥주축제' 여는 까닭은", 2016.08.12.

북한, 폭우로 이재민 4만 4,000여 명 발생

-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최근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두만강이 범람하고 15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9월 3일 보도하였음. 또 1만 7,000여 세대의 가옥이 부서지고 4만 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 중앙통신은 "(2016년) 8월 29일에 발생한 10호와 북서쪽에 형성된 저기압 마당이 합쳐지면서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함경북도를 비롯해 조선 전역에 센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면서 "8월 29일 0시부터 9월 2일 12시 사이에 경흥군과 부령군에 내린 강수량은 각각 320mm, 290mm"라고 전하였음.
- 또 온성·경성·경원·연사·화대군, 양강도의 대흥단 등 여러 지방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회령시·무산군·온성군·경원군·경흥군·연사군·나선시의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통신은 전하였음.
- 통신은 "회령시에서 15명이 실종됐으며, 함경북도에서 8,670여 동에 1만 7,180여 세대의 살림집이 완전 혹은 부분 파손되어 4만 4,000여 명이 집을 잃었다"고 전하였음.

중앙일보, "북한, 폭우로 4만 4000여 명 이재민 발생", 2016.09.03.

북한, 핵탄두 폭발 시험 단행

-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2016년 9월 9일 오후 1시 30분(평양시간 오후 1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고 보도하였음.

매일경제, "북한 '핵탄두 폭발시험 단행'...조선중앙TV 4시간 만에 발표", 2016.09.09.

UN, 북한 함경북도 홍수로 133명 사망, 395명 실종

○ 유엔은 최근 북한 함경북도 대홍수로 133명이 숨지고 39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알렸음.

- AFP통신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말을 빌려 이 같은 인명피해와 함께 "두만강 주변 유역의 북한 주민 10만 7,0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OCHA에 따르면 북한 내 3만 5,500가구 이상이 홍수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69%는 가옥이 완전히 무너졌음. 공공건물 8,700채도 훼손되었음.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55배에 달하는 농지 1만 6,000ha가 침수되었음.

- OCHA는 현재 도움이 시급한 북한 주민이 최소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유엔 산하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NGO), 국제적십자사, 북한 적십자회 등으로 구성된 구호 지원단은 북한 내 홍수 피해 지역에 방문해 피해 복구 활동을 하였음.

세계일보, "UN, 북한 함경북도 홍수로 133명 사망 · 395명 실종", 2016.09.12.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 상반기 순자산 증가

○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북한 내 협력사인 고려링크의 순자산이 2016년 상반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최근 발표한 오라스콤의 2016년 상반기 회계 보고서에는 고려링크의 순자산이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약 9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담겼음. 이는 반 년 만에 약 28% 증가한 수치임.

-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한 고려링크의 상반기 이익은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와 협력,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음.

- 보고서는 "지난해(2015년) 9월30일부터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자회사에서 협력 회사로 바뀌었다"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영업 이익 외부 반출 불가, 북한 내 휴대전화 경쟁업체의 등장 등이 이유"라고 설명하였음.

- 특히 보고서는 오라스콤이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등의 문제로 북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라스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내 또 다른 휴대전화 사업체와 합병하려고 하였지만 합병사의 경영권을 놓고 북한정부와 합의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고 전하였음.

뉴스1, "북한 이통사 고려링크 상반기 순자산 크게 증가-VOA", 2016.09.21.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북한, 장마·200일 전투로 쌀값 상승 추세

- 북한지역에 계속되는 장마와 '200일 전투' 영향으로 쌀값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2016년 7월 초 장마당 물가를 종합한 결과 쌀 1kg에 평양은 5,100원으로 2016년 6월 초 보다 150원이 올랐고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5,170원으로 270원이, 양강도 혜산시는 5,500원으로 650원이 올랐음.
- 환율은 평양은 1달러 당 8,325원으로 75원이 내렸고 신의주는 8,310원으로 107원, 혜산시는 8,320원으로 195원이 각각 내렸음.
 - 노컷뉴스, "북한, 장마·200일 전투로 쌀값 오름세", 2016.07.12.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북한의 식량사정

- 미국 농무부는 10년 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시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식량안보평가 2016'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 꼴로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북한 주민 980만 명이 유엔의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도 790만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 문제로 고통 받을 것"으로 내다봤음.
 -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016년 약 39만 톤에서 2026년 28만 5,000톤으로 줄지만, 식량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북한 주민 한 명이 하루 평균 약 2,100칼로리를 섭취해 아시아 평균인 2,500칼로리보다 적으며, 유엔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북한은 2016년 약 40%의 주민이 식량 부족 상태로 10년 후인 2026년 30%가 여전히 식량부족상태로 남는다"고 전망하였음.
 - 노컷뉴스, "美 농무부, 북한 10년 후에도 식량 사정 아시아 최저 수준", 2016.07.16.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서 발표한 북한의 식량사정

-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하였음.
 - OCHA는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주민 41.6%가 영양부족 상태"라며 "북한 주민 1,050만여 명이 식량이나 다양한 영양소 섭취 부족 등으로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또 "영양부족이 특히 산모와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였음.
- 이어 보고서는 "240만여 명의 임신부와 수유모,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고, 170만여 명의 어린이가 폐렴과 설사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음.

○ 한편 OCHA는 "올해(2016년)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억 2,200만 달러(한화 1,390억여 원)이지만 6월 30일 기준 모금액은 올해(2016년) 필요한 예산의 22%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금은 2004년 3억 달러에서 2015년 4,270만 달러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고 VOA는 전하였음.

연합뉴스, "유엔 "북한 주민 10명 중 4명 영양부족 상태"", 2016.07.20.

FAO, 북한 식량위험지수 191개국 중 52위로 평가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국가별 위험관리지수 조사에서 전체 191개국 가운데 북한을 52번째로 평가하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기구는 자연재해, 정부 행정력, 지역 사회의 취약성 등 50개 지표를 종합한 '2016 위기지수 보고서'를 공개하였음. 북한은 4.4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하위 27% 수준인 52위로 평가되었음.
- 특히 보고서는 '국제 기후위험지수' 통계를 통해 북한이 재해 규모에 비해 더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나라라고 적시하였음.

연합뉴스, "FAO, 북한 식량위험지수 191개국 중 52번째로 높아", 2016.07.28.

2016년 2분기 북한의 식량 배급량, 2011년 이래 최저 규모 기록

○ 북한이 2016년 2분기 배급한 식량이 2011년 이래 최저 규모라는 조사가 나왔음.

- '미국의 소리(VOA)'는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주민 한명 당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인 370g에서 10g 감소하였으며 2015년 2분기 평균 배급량 410g보다 50g 줄어든 규모임.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유엔이 정한 1인당 권장량(600g)의 62%에 불과함.
-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분기 평균 식량 배급량 가운데 가장 낮음.

조선일보, "북한 식량 배급량, 2011년 이래 최저... 권장량 60% 수준", 2016.08.03.

WFP, 식자재 수송 지연에 따른 대북 식량 지원 규모 축소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밀가루 등 식자재 수송이 지연돼 2016년 7월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이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 잔느 스피레인 대변인은 "지난달(2016년 7월) 북한 취약계층 45만 7,000여 명에게 미량 영양소가 첨가된 밀가루와 영양 강화 과자 379톤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2016년 7월 한 달 동안 취약계층 한 명이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은 하루 평균 27g에 불과하였음.
 - 스피레인 대변인은 "식량 수송이 지연되는 이유는 북한에 물자를 수송하려는 운송회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한국은 180일 이내 북한을 방문한 해외 선적 선박의 한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한 선박의 화물을 검색하고, 금지품목이 발견될 경우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 "WFP, 북한에 물자 수송하려는 운송회사 찾기 어렵다...대북 지원 차질", 2016.08.06.

북한의 식량 부족량, 66만 톤으로 파악

- 2016년,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66만 톤에 이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RFA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공개한 2016년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6개 식량 부족 국가군에 포함시켰음.
 - FAO는 2016년 8월 함경북도와 나선 지역의 홍수가 가을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 FAO는 북한 당국이 수입하거나 인도주의 국제 지원으로 채워야 할 식량 부족분이 약 70만 톤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4% 가량만을 확보, 6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뉴스1, "FAO "북한 올해 66만t 식량 부족"...36개 식량 부족국 포함", 2016.09.13.

2016년 북한 쌀 수확량, 240만 톤으로 전망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2016년 쌀 수확량이 240만 톤으로 2015년보다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FAO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2016년)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 날씨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보고서는 2016년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에 홍수 피해가 있었지만, 전체 북한 농토 약 2만 7,411ha 중 2%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FAO, 북한 올해 쌀 수확량 240만t 전망...작년보다 증가", 2016.09.22.

함경북도 식량 가격 급등

-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일본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 남양지구에서 쌀 1kg의 가격은 약 8,000원, 옥수수 1kg은 2,000원"이라며 "수해 직전인 지난달(2016년 8월) 말 기준 쌀은 4,300원, 옥수수는 1,000원대였던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폭등한 것"이라고 전하였음.

뉴스1, "북한 홍수 피해지역 식량 가격 두 배 가까이 폭등", 2016.09.22.

북한, 수해 지역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

- 북한 당국이 대규모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통해 "쌀 가격 등 변화가 큰물 피해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없다"며 "보안원과 순찰대가 출동해 쌀 사재기 및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막았다"고 전하였음.
- 소식통은 수해가 일어난 후 한 장사꾼이 1kg에 5,000~5,300원이던 쌀을 8,000원에 팔려고 하였지만 보안원의 통제 때문에 눈치만 보다 결국 실패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이어 "회령시의 경우 한때는 쌀 가격이 6,000원까지 폭등하긴 하였으나 지금은 5,000원대로 하락하였다"며 "돼지고기 가격도 홍수 이전과 같은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북한, 수해지역 물가 안정 위해 총력...사재기 단속", 2016.09.28.

2016년 9월 북한의 1인당 식량 배급량, 300g으로 파악

- 북한 당국의 2016년 9월 식량 배급량이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이 2016년 9월 들어서도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의 식량밖에 배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은 수개월 동안 중단하였던 양강도에 대한 영양 지원 사업을 최근 재개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은 새 대북 사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자금부족으로 양강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었음.
 - 양강도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양 상태 조사'에서 영양실조 비율이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세계식량계획은 또 2016년 7월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7개 도와 남포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음.
 -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노컷뉴스, "WFP, 북한 9월 배급량 300g..."유엔 권장량 절반 수준", 2016.09.28.

3 농림수산 일반

북한,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낮은 저수율 기록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에서 2014-15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아직 관개에 필요한 물 저장량의 3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엘니뇨, 농업, 식량안보, 영양에 대한 조기 대응과 반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모두에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자 유사시아방송이 전하였음.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엘니뇨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과 복구 사업을 펼치는데 모두 1,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그러나 "이 가운데 925만 달러가 유엔의 중앙긴급구호기금과 식량농업기구 내부 자원으로 충당됐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음.
-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는 지난해(2015년) 재작년(2014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약 9%의 경작지가 농업에 부적절하다고 나타났다"면서 "길어진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11% 감소하였다"고 밝혔음.

노컷뉴스, "북한,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율 35%만 유지", 2016.07.07.

북한, 양묘장 관리 부실 비판

- 조선중앙TV는 산림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는 북한이 황해북도 일대의 부실한 복구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음.

- 조선중앙TV는 황해북도 내 산림 복구 사업에서 부진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일부 단위들에서는 산림복구전투를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일처럼 여기면서 무책임하게 대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중앙TV는 "여기 사리원 경암술공장에서는 공장 정문 옆에 양묘장을 꾸려놓기는 하였지만, 양묘장으로 드나드는 길이 따로 없어 종업원들이 불편하게 양묘장의 나무들을 관리 하고 있었다"고 공장의 부실관리 실태를 지적하였음.
 - 중앙TV는 또 황해북도 서흥군 양사리에 있는 서흥농장 제3작업반에 대해 "양묘장에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거름을 주고 가꾸는 일)를 매우 무책임하게 하고 있었다"면서 "어느 것이 나무이고 어느 것이 잡풀인지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곳에서 산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를 원만히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은 볼 보듯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북한은 김정은의 산림 복구 지시가 내려진 이후 복구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해 공식 매체를 통해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 연합뉴스, "북한 양묘장 관리부실 또 질타..."어느 게 나무고 잡풀인지", 2016.08.05.

북한, 유엔에 농작물 작황 조사 요청하지 않은 상태

- 유엔은 북한으로부터 아직 2016년 농작물 수확량 조사를 위한 공식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고 밝혔음.
-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GIEWS)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올해(2016년) 작황 조사를 위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음.
- 북한이 2016년에도 작황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농작물 상태와 생산성, 수확량 등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의 북한 내 수확량 조사가 3년째 무산됨.
-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 조사를 위해 북한에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음.
- 코슬렛 담당관은 일반적으로 유엔의 작황 조사는 추수 시기나 본격적인 추수 직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실시된다고 말하였음. 유엔이 실사단을 구성해 방북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3~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와 함께 매년 한 두 차례 실사단을 파견해 작황과 식량안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음.
- 실사단의 작황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북한 관리들과 협동 농장 관계자를 만나고, 수확 또는 재배 중인 곡식을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 부족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세계식량계획은 식량 사정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병원과 개별 가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확보 경로,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함.

노컷뉴스, "북한, "올해도 유엔에 농작물 작황 요청하지 않아"", 2016.08.17.

북한 협동 농장, 추수 앞두고 홍수 피해·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파악

- 추수를 앞둔 북한 북부 산간 지대 협동 농장이 홍수 피해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협동농장들에 이달 (2016년 9월) 10일부터 가을걷이를 시작하라는 농업성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러나 최근 홍수로) 땅이 질척일 정도로 물이 빠지지 않아 현재로선 감자파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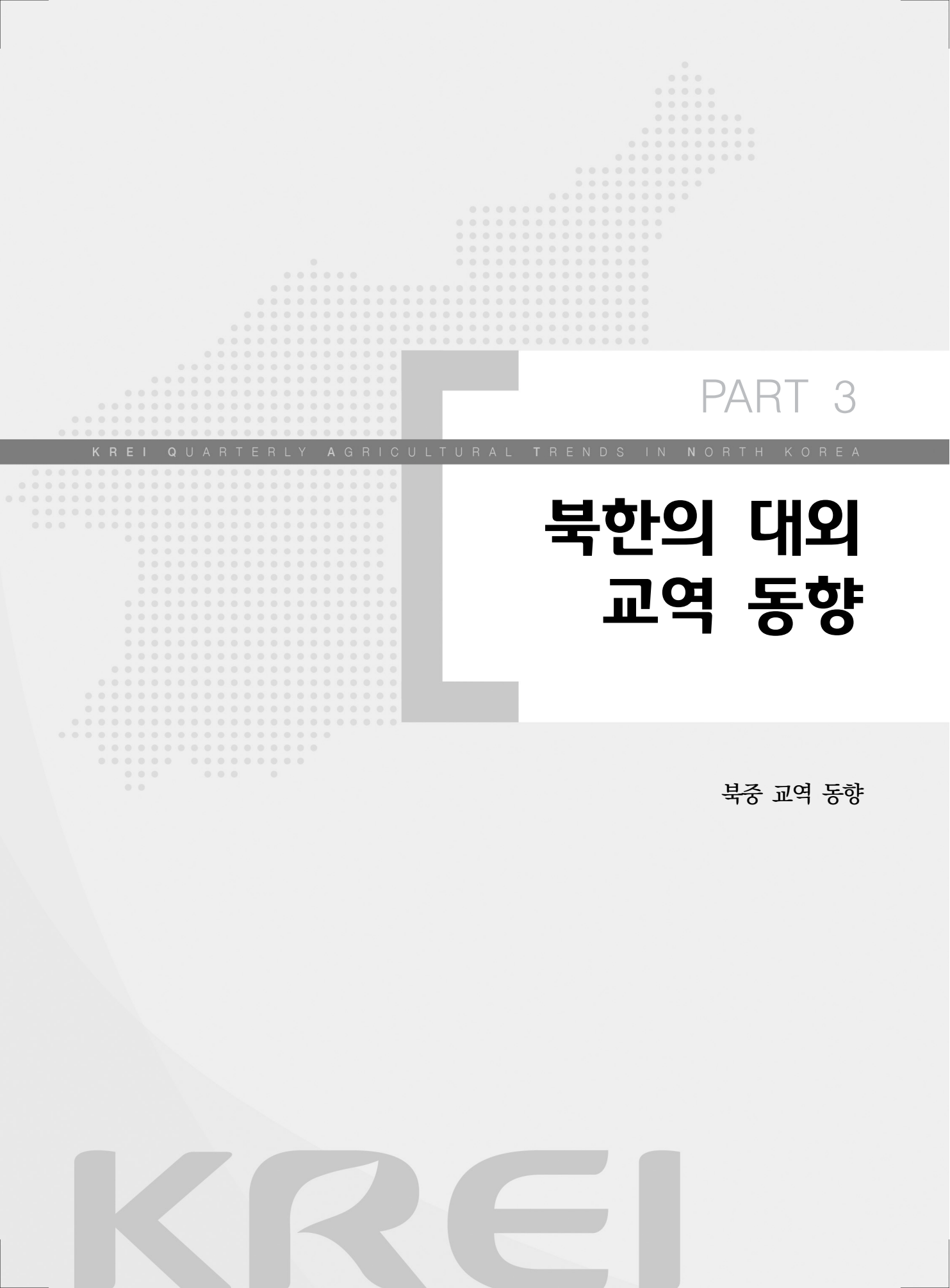
- 이 소식통은 "양강도의 대표적 감자 농장인 대흥단군과 삼지연군 포태(두부콩) 농장은 특히 장마 피해가 컸다"며 "아직 파괴된 도로와 다리를 복구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였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감자를 많이 심는 연사군과 무산군도 이달(2016년 9월) 10일부터 가을걷이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러나 농민들은 가을걷이가 시작되는 때까지 땅이 마를 수 있을지를 근심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 소식통은 "올해(2016년) 가을은 장마로 도로와 다리들이 파괴돼 수확물 운반수단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학생들과 주민들은 모두 큰물(홍수) 피해 복구에 동원돼 올해(2016년) 가을엔 농촌 지원노력을 기대할 형편도 안된다"고 덧붙였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최근 두만강 유역에 사상 최대의 홍수가 발생해 논밭 7,914ha가 침수되고, 2,082ha가 유실됐으며, 공공건물 560채와 생산건물 30채, 교육기관 건물 20채가 파괴·침수됐다고 2016년 9월 6일 보도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협동농장들, 추수 앞두고 홍수 피해·인력난 이중고", 2016.09.08.



PART 3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북중 교역 동향

KREI



북중 교역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표 1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5~2016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5. 1	0	0	94	78	1,261	136	1,569
2	0	0	104	0	391	1,759	2,254
3	0	91	19	0	362	384	856
4	0	1,384	627	0	1,183	460	3,654
5	0	197	444	0	80	87	808
6	0	137	1,028	0	584	869	2,618
7	0	246	2,833	0	369	16	3,464
8	0	130	1,416	0	180	692	2,418
9	0	246	961	0	273	25	1,505
10	0	109	891	0	655	0	1,655
11	0	160	451	0	120	0	731
12	0	317	1904	0	187	75	2,483
2015.1-12	0	3,017	10,772	78	5,645	4,503	24,015
2016. 1	0	0	229	0	26	0	255
2	0	228	99	0	0	0	327
3	0	0	0	0	0	0	0
4	0	0	267	0	3	144	414
5	0	0	633	0	25	4	662
6	0	146	1,125	0	263	16	1,550
7	0	16	2,074	0	132	0	2,222
8	0	114	3,740	0	48	0	3,902
9	0	17	9,858	0	540	356	10,771
2016.1-9	0	521	18,025	0	1,037	520	20,103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6년 9월 북한은 중국에서 18,276톤의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2015년 9월의 2,979톤에 비해 곡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였음.

- 동년 전월 대비 166.6%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513.5% 증가하였음.

- 2016년 9월까지 북한은 중국에서 총 35,155톤의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인 38,713톤에 비해 9.2% 감소하였음.
- 곡물 총 수입액은 20,103천 달러로 2015년 같은 기간의 19,146천 달러에 비해 5% 증가함.
- 2016년 9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곡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옥수수 4.0%, 쌀 85.8%, 밀가루 1.8%, 두류 1.6%로 쌀의 비중이 높았음.

표 2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5~2016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5. 1	0	0	157	120	2,814	183	3,274
2	0	0	180	0	869	2,438	3,487
3	0	240	37	0	1,140	405	1,822
4	0	5,557	1,075	0	3,225	399	10,256
5	0	520	738	0	146	110	1,514
6	0	360	1,686	0	1,667	1,305	5,018
7	0	650	4,535	0	964	20	6,169
8	0	345	2,324	0	477	1,048	4,194
9	0	650	1,554	0	743	32	2,979
10	0	290	1125	0	1,750	0	3,165
11	0	413	696	0	264	0	1,373
12	0	866	3031	0	378	75	4,350
2015.1-12	0	9,891	17,138	120	14,437	6,015	47,601
2016. 1	0	0	374	0	60	0	434
2	0	600	165	0	0	0	765
3	0	0	1	0	0	0	1
4	0	0	470	0	10	120	600
5	0	0	1,202	0	50	3	1,255
6	0	400	1,862	0	524	24	2,810
7	0	50	3,553	0	556	0	4,159
8	0	300	6,447	0	109	0	6,856
9	0	55	16,096	0	1,713	412	18,276
2016.1-9	0	1,405	30,170	0	3,022	559	35,156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 무역정보)

-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571.8달러였으며, 곡종별로는 옥수수 370.8달러, 쌀 597.5달러, 밀가루 343.2달러였음.
-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동년 전월 대비 3.6% 상승하였고 옥수수, 쌀, 밀가루는 각각 18.7% 감소, 5.6% 상승, 28.4% 하락하였음.
- 2015년 한 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94.6달러였으며 곡종별로는 옥수수 292.1달러, 쌀 612.6달러, 밀가루 388.8달러, 콩 745.5달러임.

- 2016년 9월 28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근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30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 밀은 148달러, 대두는 347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였음.
- 2016년 9월 27일 기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 당 600달러(FOB 본선인도가격, 도정율 4% 1등급, 25kg 부대 포장 품질 기준), 태국산 장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 당 374달러(FOB, 100% B등급 기준)임.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표 1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5~2016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5. 1	875	0	0	114	989
2	166	0	0	131	297
3	2,078	0	0	457	2,535
4	1,284	0	4	198	1,486
5	3,902	0	13	127	4,042
6	2,850	0	8	331	3,189
7	5,444	0	0	53	5,497
8	1,038	0	0	0	1,038
9	59	0	0	0	59
10	103	0	2	0	105
11	15	0	1	0	16
12	112	0	0	136	248
2015.1-12	17,926	0	28	1,547	19,501
2016. 1	8,784	0	2	161	8,947
2	16,739	0	0	1,669	18,408
3	5,506	0	21	1,989	7,516
4	88	18	36	223	365
5	123	0	1	225	349
6	326	0	0	80	406
7	523	8	7	29	567
8	608	0	0	0	608
9	187	0	0	0	187
2016.1-9	32,884	26	67	4,376	37,353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6년 9월 북한은 중국에서 772톤의 비료를 수입하여 동년 8월 2,401톤에 비해 수입량이 감소하였음. 이는 작년도 전체 수입량 70,979톤의 약 1.1%에 해당함.
- 9월 북한이 수입한 비료는 질소비료 772톤이며 복합비료, 칼리비료, 인비료는 수입되지 않았음.

- 금년 9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157,474톤으로 성분량 기준으로 요소는 62,175톤, 유안은 1,540톤이었음. 2015년의 요소와 유안의 성분량은 각각 25,551톤, 2,222톤임.¹⁾

표 2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5~2016

단위 : 수입량(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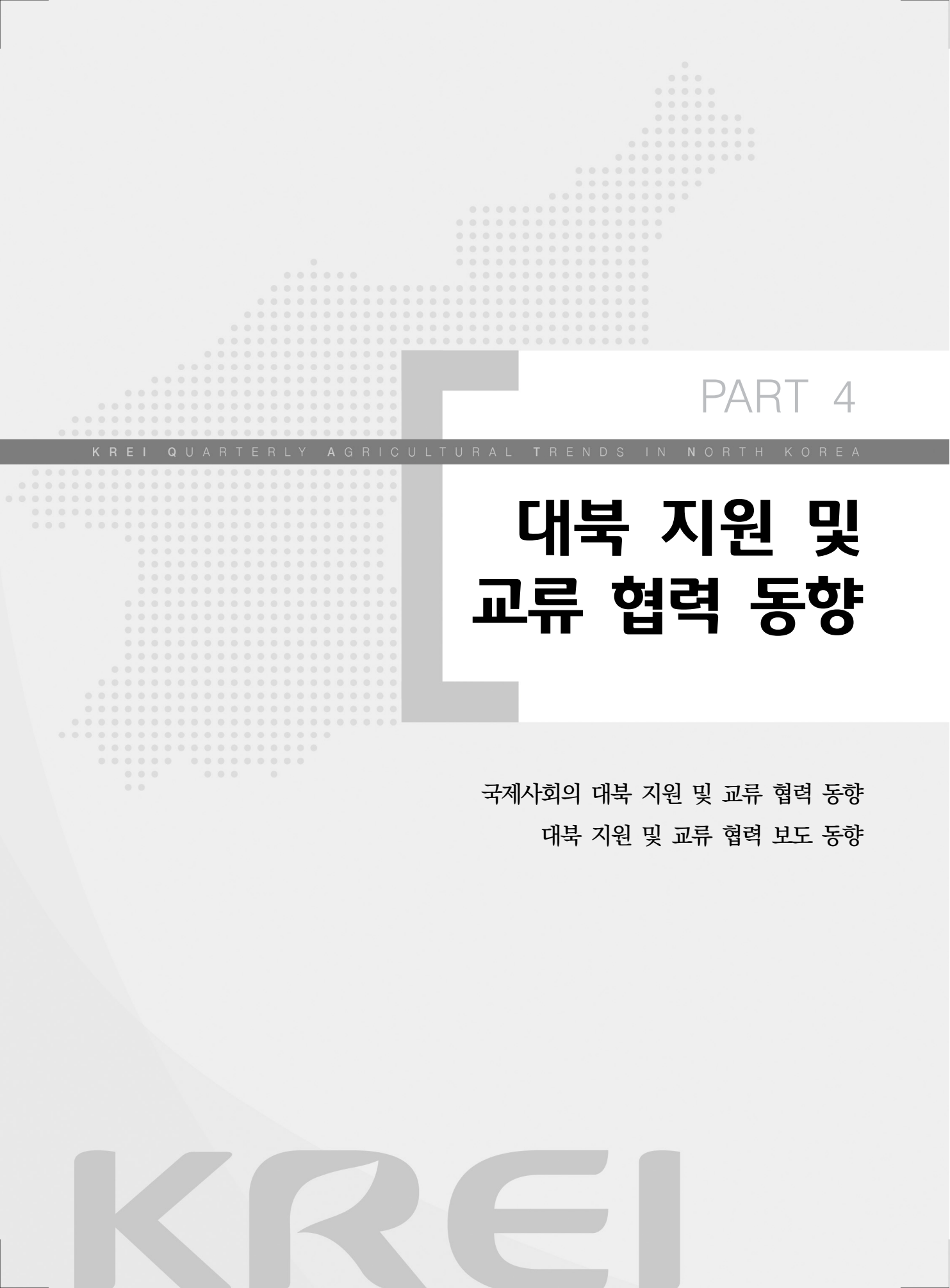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5. 1	3,184	0	0	300	3,484
2	600	0	0	345	945
3	11,144	0	0	1,111	12,255
4	4,906	0	5	450	5,361
5	15,312	0	18	274	15,604
6	9,307	0	20	686	10,013
7	18,362	0	0	110	18,472
8	3,558	0	0	0	3,558
9	205	0	0	0	205
10	349	0	3	0	352
11	61	0	3	0	64
12	394	0	0	274	668
2015.1-12	67,382	0	49	3,550	70,981
2016. 1	37,003	0	5	325	37,333
2	74,828	0	0	4,232	79,060
3	26,388	0	37	5,836	32,261
4	328	52	97	554	1,031
5	562	0	2	533	1,097
6	1,283	0	0	189	1,472
7	1,934	30	15	67	2,046
8	2,401	0	0	0	2,401
9	772	0	0	0	772
2016.1-9	145,499	82	156	11,736	157,473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6년 9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230.5달러, 141.6달러임.

- 2015년 12월 누적 기준,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294.9달러, 111.0달러임. 2014년의 평균 수입단가는 각각 302달러, 116.5달러임.

1) 성분비는 요소 45%, 유안 21%를 적용하였음.



PART 4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KREI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6.9.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 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9,771	-	유엔기구 1,682,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541, EU 1,429, 스웨덴 894, 스위스 838,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등
18차 '12.1~12	-	11,748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292, 유엔기구 1,443,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스웨덴 334 등
19차 '13.1~12	-	6,306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1,510, 한국 1,234,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노르웨이 262, 러시아 300, 독일 214, 호주 150 등
20차 '14.1~12	-	2,835	-	한국 657,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650, 스웨덴 489, 스위스 416, 캐나다 360, 프랑스 104, 노르웨이 100, 독일 60 등
21차 '15.1~12	-	3,187	-	스위스 945,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828, 스웨덴 419, 한국 400, 캐나다 215, 독일 198, 노르웨이 99, 프랑스 57 등
22차 '16.1~9	-	3,806	-	스위스 1,223,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800, EC 376, 러시아, 300, 독일 365, 스웨덴 213, 캐나다 202, UN 기관 152 등
총 계	-	216,142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tember, 21, 2016)

표 2 2016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6.1.1.~9.21.)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CARITAS	독일	1,528,879	요양원 내 노약자 및 병약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 증대(AA-S05 321.50 PRK 02/16)
DWHH	EuropeAid	1,574,101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European Commission	1,698,630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
	독일	830,688	4개 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의 재난 위기 감소 지원(경사지 관리)(AA-S05 321.50 PRK 03/15)
	사적지원	144,995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사적지원	73,696	북한 내 4개 지역의 경사지 관리(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사적지원	203,245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소계	4,525,355	
FAO	유엔중앙긴급구호 기금	784,000	취약 계층의 영양 실조 현상 완화를 위한 대두 증산 긴급 지원
핀란드 RC	European Commission	339,751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ECHO/-XA/BUD/2016/91019)
독일 RC	독일	453,001	함경남도 재난 준비 (AA-S05 321.50 PRK 03/15)
HI	스위스	95,692	산체 장애자 재활 능력 증대(7F-095556.01)
ICRC	스위스	493,583	인도적 지원(7F-08393.36)
SC	스웨덴	545,263	인도적 지원
	독일	840,708	학교 및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제도적 기반 강화(AA-S05 321.50 PRK 01/16)
	소계	1,385,971	
스웨덴 RC	스웨덴	938,086	인도적 지원
UNFPA	유엔중앙긴급구호 기금	700,000	임산부에 대한 여성 보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UNICEF	캐나다	516,987	UNICEF의 지원 요청[D003248/7062276] (SM160151)
	유엔중앙긴급구호 기금	1,650,732	영양실조에 관한 지역 공동체 관리(CMAM)
	유엔중앙긴급구호 기금	995,982	구호물자(필수 의약품) 제공을 통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치명 질병 발생률 감소
	스웨덴	644,934	유니세프의 영양 요청(52040468 AMENDMENT NO.7) (SM160106)
	소계	3,808,635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FP	WFP의 일부	1,519,4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캐나다	1,498,127	WFP PRRO 200907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D003250]
	유엔중앙긴급구호 기금	2,87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인도	1,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및 지역의 재난 수용 능력 강화(PRRO 200907)
	러시아 연방	3,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스위스	4,084,552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지역 내 재난 대처 능력 강화(PRRO 200907)
	스위스	501,505	WFP 현금 공여(7F-06817.39) (PRRO 200907)
	스위스	4,020,039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7F-00972.20.01)
	다양한 공여자	685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PRRO 200532)
	스위스	1,577,722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 (7F-00972.21.01)
	소계	20,072,030	
WHO	유엔중앙긴급구호 기금	999,978	구호 강화 및 제공, 저체중 신생아 및 취약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FIDA	EuropeAid	151,861	식량 안보를 위한 감자 재배 및 저장 기술 지원 (DCI-FOOD /2012/308-508)
PU	프랑스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SDC/SHA	스위스	157,520	경사지 관리(7F-08384.03)
	스위스	1,301,186	위생 및 공중보건 강화(7F-0722.03)
	소계	1,458,706	
TGH	프랑스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합 계		38,063,396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tember, 21, 2016)

표 3

2016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6.1.1.~9.21.)

분 야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EuropeAid	DWHH	1,574,101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독일	DWHH	830,688	4개 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의 재난 위기 감소 지원(경사지 관리)(AA-S05 321.50 PRK 03/15)
	사적지원	DWHH	203,245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유엔중양간급구 호기금	FAO	784,000	취약 계층의 영양 실조 현상 완화를 위한 대두 증산 긴급 지원
	EuropeAid	FIDA	151,861	식량 안보를 위한 감자 재배 및 저장 기술 지원 (DCI-FOOD /2012/308-508)
	소계		3,543,895	
물과 위생	European Commission	DWHH	1,698,630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
	사적지원	DWHH	144,995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스위스	SDC/SHA	1,301,186	위생 및 공중보건 강화(7F-0722.03)
	소계		3,144,811	
식량 및 인도적 지원	캐나다	UNICEF	516,987	UNICEF의 지원 요청[D003248/7062276] (SM160151)
		WFP	1,498,127	WFP PRRO 200907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D003250]
	유엔중양간급구 호기금	UNFPA	700,000	임신부에 대한 여성 보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UNICEF	1,650,732	영양실조에 관한 지역 공동체 관리(CMAM)
		UNICEF	995,982	구호물자(필수 의약품) 제공을 통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치명 질병 발생을 감소
		WFP	2,87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WHO	999,978	구호 강화 및 제공, 저체중 신생아 및 취약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독일	CARITAS	1,528,879	요양원 내 노약자 및 병약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 증대(AA-S05 321.50 PRK 02/16)
	인도	WFP	1,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및 지역의 재난 수용 능력 강화(PRRO 200907)
	러시아	WFP	3,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스웨덴	SC	545,263	인도적 지원
		Sweden RC	938,086	인도적 지원
		UNICEF	644,934	유니세프의 영양 요청(52040468 AMENDMENT NO.7) (SM160106)

(계속)

분 야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위스	HI	95,692	신체 장애인 재활 능력 증대(7F-095556.01)
		ICRC	493,583	인도적 지원(7F-08393.36)
		WFP	4,084,552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지역 내 재난 대처 능력 강화(PRRO 200907)
	다양한 공여자	WFP	685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PRRO 200532)
	WFP	WFP	1,519,4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프랑스	PU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TGH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소계		23,410,748	
재난 관련	European Commission	핀란드 RC	339,751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ECHO/-XA/BUD/2016/91019)
	독일	독일 RC	453,001	함경남도 재난 대비 (AA-S05 321.50 PRK 03/15)
	독일	SC	840,708	학교 및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제도적 기반 강화(AA-S05 321.50 PRK 01/16)
	소계		4,673,827	
기타	사적지원	DWHH	73,696	북한 내 4개 지역의 경사지 관리(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스위스	WFP	501,505	WFP 현금 공여(7F-06817.39) (PRRO 200907)
		WFP	4,020,039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7F-00972.20.01)
	스위스	WFP	1,577,722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7F-00972.21.01)
	스위스	SDC/SHA	157,520	경사지 관리(7F-08384.03)
	소계		6,840,567	
합 계			38,063,396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tember, 21, 2016)

표 4

2016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6.1.1.~9.21.)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캐나다	UNICEF	516,987	UNICEF의 지원 요청[D003248/7062276] (SM160151)
	WFP	1,498,127	WFP PRRO 200907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D003250]
	소계	2,015,114	
독일	DWHH	830,688	4개 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의 재난 위기 감소 지원(경사지 관리)(AA-S05 321.50 PRK 03/15)
	CARITAS	1,528,879	요양원 내 노약자 및 병약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 증대(AA-S05 321.50 PRK 02/16)
	독일 RC	453,001	함경남도 재난 대비 (AA-S05 321.50 PRK 03/15)
	SC	840,708	학교 및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제도적 기반 강화(AA-S05 321.50 PRK 01/16)
	소계	3,653,276	
인도	WFP	1,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및 지역의 재난 수용 능력 강화(PRRO 200907)
러시아	WFP	3,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스웨덴	SC	545,263	인도적 지원
	스웨덴 RC	938,086	인도적 지원
	UNICEF	644,934	유니세프의 영양 요청(52040468 AMENDMENT NO.7) (SM160106)
	소계	2,128,283	
스위스	WFP	501,505	WFP 현금 공여(7F-06817.39) (PRRO 200907)
	HI	95,692	신체 장애자 재활 능력 증대(7F-095556.01)
	ICRC	493,583	인도적 지원(7F-08393.36)
	WFP	4,084,552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지역 내 재난 대처 능력 강화(PRRO 200907)
	WFP	4,020,039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7F-00972.20.01)
	SDC/SHA	157,520	경사지 관리(7F-08384.03)
	SDC/SHA	1,301,186	위생 및 공중보건 강화(7F-0722.03)
	WFP	1,577,722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7F-00972.20.01)
	소계	12,231,799	
프랑스	PU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TGH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소계	327,868	

(계속)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FAO	784,000	취약 계층의 영양 실조 현상 완화를 위한 대두 증산 긴급 지원
	UNFPA	700,000	임신부에 대한 여성 보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UNICEF	1,650,732	영양실조에 관한 지역 공동체 관리(CMAM)
	UNICEF	995,982	구호물자(필수 의약품) 제공을 통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치명 질병 발생을 감소
	WFP	2,87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WHO	999,978	구호 강화 및 제공, 저체중 산생아 및 취약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소계	8,000,692	
EuropeAid	DWHH	1,574,101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FIDA	151,861	식량 안보를 위한 감자 재배 및 저장 기술 지원 (DCI-FOOD /2012/308-508)
	소계	1,725,962	
European Commission	DWHH	1,698,630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
	핀란드 RC	339,751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ECHO/-XA/BUD/2016/91019)
	소계	2,038,381	
다양한 공여자	WFP	685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PRRO 200532)
WFP의 일부	WFP	1,519,4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사적지원	DWHH	73,696	북한 내 4개 지역의 경사지 관리(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DWHH	203,245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DWHH	144,995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소계	421,936	
합 계		38,063,396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tember, 21, 2016)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국내 관련 보도 동향

독일 NGO가 지원한 농아 유치원 개원

○ 북한 최초의 농아 유치원이 2016년 6월 4일 문을 열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북한에는 30~35만 명의 농아가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 2만 명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VOA에 "개원 당시 3명이던 농아 어린이가 현재 2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하였음. 유치원은 투게더-함흥과 가톨릭 단체, 기부자의 지원으로 건립됐으며 교실 10개에 4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음.

연합뉴스, "북한 첫 농아유치원 개원...독일 NGO 지원", 2016.07.01.

WFP, 북한 취약 계층 170만 명에게 식량 지원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2018년까지 북한의 취약계층 170만 명에게 식량 15만 톤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장기구호 및 복구사업'을 2016년 7월부터 새로 시작하였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WFP 실케 버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지원 대상을 임산부 약 40만 명, 영양실조 상태 어린이 약 86만 명, 자연재해 피해지역 주민 등 총 170만 명이라고 밝혔음. 대상 지역은 7개 도와 남포 등 8개 행정구역의 60개 시·군 또는 지구임. 양강도와 자강도, 평양은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음.

- WFP는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2015년 말까지 북한 주민의 지역별 식량 보유와 영양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지역과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음. WFP는 30개월 동안 식량 15만 톤 지원 비용에 1억 2,590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편 WFP는 지난 2년 6개월간 진행하였던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2016년 6월 종료하였음.

-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6월에만 임신부와 어린이 등 북한 주민 64만 명에게 영양 강화식품 2,150톤이 지원되었음.

경향신문, "WFP, 북 취약계층 170만 명에 식량 지원", 2016.07.07.

EU, 북한 재난 예방 위해 34만 달러 지원

○ 유럽연합은 북한에서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0만 유로(34만 달러)를 배정하였다고 밝혔음. 유럽연합은 이번 대북 재난 지원 사업은 핀란드 적십자사가 이행한다고 덧붙였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ECHO)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200만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북한 지원에는 약 34만 달러를 책정하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하였음.
- 핀란드 적십자사는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에 주력하는 '농촌 재난관리 사업'을 하고 있음.

노컷뉴스, "EU, 북한 재난 예방 위해 34만 달러 지원", 2016.07.15.

러시아, 밀가루 3,000톤 지원

○ 러시아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밀가루 3,000톤을 지원하였다고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음.

-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가 남포항을 통해 밀가루 3,151톤을 북한 주민들에 공급하였으며, 조만간 청진항으로 400톤을 더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음.
- 밀가루 전달식에는 알렉산드르 미나예프 러시아 수석 참사관을 비롯해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 스벤 텔린 대표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 주요 지원국 가운데 하나로 2011년부터 세계식량계획에 2,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노컷뉴스, "러시아, "WFP통해 북한에 밀가루 3천 톤 지원"", 2016.07.22.

독일 NGO, 북한에서 새 식수사업 시작

○ 독일의 한 비영리단체가 북한에서 새로운 식수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VOA는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벨트홍게르힐페(세계기아원조)가 지난달(2016년 6월) 강원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새 식수사업을 시작하였다"

며 "평안도 운산·향산군, 구장군과 강원도 안변군에 우물을 판 뒤 수동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하였음.

- 울리크 쉴렌커 벨트흥게르힐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21만 유로(약 2억 7,000만 원)이며, 사업은 내년(2017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고 VOA는 설명하였음.
- 쉴렌커 대변인은 "현재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영양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유럽연합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벨트흥게르힐페는 1997년부터 북한에서 폐수정화, 농촌 재난대비, 채소 종자 생산 등의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 왔음. 2016년, 이 단체의 대북지원 예산은 새 식수사업을 포함해 140만 유로(약 17억 6,000만 원)임.

연합뉴스, "독일 NGO, 북한서 내년 1월까지 새 식수사업", 2016.07.22.

호주,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460만 달러 지원

○ 호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46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는 '국제 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46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하였음. 또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평균 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해 왔다고 밝혔음. 2015년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30만 달러를 기부하였음.
-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음.

노컷뉴스, 호주 정부, "WFP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460만 달러 지원", 2016.07.23.

국제구호단체, 북한에서 재난대비 사업 시작

○ 국제구호단체가 북한에서 주민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구호단체 '세이프 더 칠드런'의 클라우디아 켈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달(2016년 7월)부터 황해북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혔음.

- 2018년 6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76만 유로(약 10억 원)로, 독일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음.
-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2016년) 16만 유로를 이미 지급하였다"면서 "내년(2017년)에 40만 유로, 2018년에 2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국제구호단체, 독일 지원으로 북한서 재난대비 사업", 2016.07.26.

미국 구호단체, 북한 내 29개 시설에 영양 쌀 지원

-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환자를 위해 '영양 쌀'을 지원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미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스톱 형거 나우'(Stop Hunger Now)는 웹사이트에 올린 세계 각국 지원 현황에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북한의 결핵·간염 환자 57만여 명에게 140만 킬로그램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영양 쌀을 지원하였다고 밝혔음.
- 영양쌀에는 죽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흰쌀과 콩, 비타민 등 23가지 영양소가 첨가돼 있음. 구호단체가 지원한 영양 쌀은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29개 시설의 환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임.

연합뉴스, "美 구호단체, 북한 내 29개 시설에 영양 쌀 지원", 2016.07.30.

유엔아동기금, 향후 5년 간 대북 사업으로 7,100만 달러 책정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향후 5년간 대북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액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예산으로 7,100만 달러(한화 790억 원)를 책정하였으며, 이는 2011~2015년의 예산 1억 2,000만 달러보다 적은 규모임.
- 이는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대북 제재로 유니세프의 북한 내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유니세프는 설명하였음. 또 북한 내 경기 침체와 농업 생산량 감소, 인적·자연재해도 (예산)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음.

- 유니세프는 대북사업 예산으로는 북한의 재난에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과 5세 이하 아동, 임산부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보건·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음.

-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과 영양, 식수·위생, 프로그램 평가 등 5개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음. 세부 분야별 필요 예산을 보면 건강 분야가 약 3,6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영양이 1,700만 달러, 식수·위생 분야가 1,100만 달러, 프로그램 평가 약 200만 달러 등임.

연합뉴스, "유엔, 5년간 대북사업 7천 100만 달러...대북 제재로 대폭감소", 2016.08.06.

유엔아동기금, 2016년 북한아동 170만 명에 영양 지원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6년 1~7월, 북한 아동 170여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밝혔음.

- 유엔아동기금은 공개한 '북한 인도주의 지원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아이들에게 영양 강화 식품, 비타민, 긴급 구호 약품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보고서는 아울러 20만 달러 상당을 들여 북한 상하수도 개선 사업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 유엔아동기금은 240만 달러를 들여 북한 149개 군에 사는 2만여 명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에게 영양 강화식품을 전달하였고, 155만여 명에게는 비타민을 줬다고 밝혔음. 또 152만 달러를 투입해 약 16만 8,000명의 북한 어린이에게 질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94개 군에선 긴급구호 약품을 지원하였음.

- 보고서는 "올해(2016년) 영양실조나 질병에 시달린 북한 주민이 1,100만 명에 이른다"며 "인구의 46%가 유엔 구호기구의 식량이나 의료, 깨끗한 물 지원이 필요하였다"고 추산하였음.

연합뉴스, "유엔아동기금, 올해 북한아동 170만 명에 영양지원 ", 2016.08.09., 조선일보, "유니세프, 북한 영양실조 아동 등 170만 명 지원", 2016.08.10.

독일 NGO, 북한 유기 농업 사업 종료

○ 독일의 비정부단체 '유기 농업 연구소'는 스위스개발협력청(SDC)의 지원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저예산 유제품 생산 증진 사업'을 2016년 10월에 끝내기로 하였음.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국의 '유기 농업 연구소'의 관계자는 "유기 농업 연구소와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미림 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음.

- 그는 "이번 미림 농장 사업은 이 단체의 '농축산 통합 사업'의 시범 농장으로, 스위스 등 유럽의 다양한 유제품 생산 기술이 북한의 환경과 잘 부합하는 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 "사업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스위스 측에 추가로 요청하였지만, 아직 사업 재개 여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전하였음.

노컷뉴스, "독일 NGO, '북한 유기농업 사업 10월 종료'", 2016.08.27.

아일랜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실시

○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금 약 44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국제개발청이 공개한 2015 연례보고서에서 "아일랜드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금은 약 40만 유로(미화로 약 44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지원하였다"고 말하였음.
- 아일랜드 국제개발청은 "자체의 지원 체계를 통해 파악한 북한의 식량과 인권 상황을 바탕으로 대북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아일랜드 국제개발청 대변인은 "향후 대북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 추가 지원과 관련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북한에서 식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아일랜드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44만 달러 지원", 2016.09.01.

유엔개발계획, 2017년 대북 지원 잠정 중단

○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7년 대북 지원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RFA는 "다음 달(2016년 10월) 6~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DP·유엔인구기금·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 운영이사회 2016년 하반기 정기이사회 심의 안전에 UNDP의 대북 지원 내용이 없다"며 "UNDP는 운영이사회에 곧 종료될 '북한국가프로그램'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현재 진행 중인 UNDP의 '북한국가프로그램'은 2011-15년에 진행된 프로그램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운영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RFA는 설명하였음.

○ UNDP는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평양에 상주하며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6개 유엔 기구를 대표한다고 RFA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유엔개발계획, 내년 대북지원 잠정 중단", 2016.09.01.

WFP, 2016년 8월 북한에 식량 1,114톤 지원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2016년 8월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가 2016년 7월에 비해 6배 증가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지난달(2016년 8월) 북한 취약계층 65만여 명에게 2,114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은 "(2016년) 8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65만여 명에게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첨가된 영양 강화식품과 영양과자를 제공하였다"고 말하였음. 이는 2016년 7월 북한 취약 계층 45만 7,000여 명에게 379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던 것에 비해 5.6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노컷뉴스, "WFP, 지난 달 대북 식량 1,114톤 지원..."을 들어 최고 수준", 2016.09.02.

스위스, 580만 달러 상당 분유 지원

- 스위스가 2016년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에 58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하였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는 2016년 WFP을 통해 북한에 분유 1,567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564만 스위스 프랑(580만 달러) 상당이며 스위스 정부가 한 해 지원한 분유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임.
- 이 가운데 375톤은 2016년 8월 28일 북한에 도착하였으며 추가로 250톤이 2016년 9월 5일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임. 나머지 942톤은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도착할 예정임. 스위스가 지원한 분유는 '슈퍼 시리얼'(혼합영양강화식품)로 가공된 취약계층에 제공됨.

뉴스1, "스위스, 북한에 580만 달러 상당 분유 지원", 2016.09.03.

WFP, 홍수 피해 북한 주민 14만 명에게 식량 지원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주민 14만 명에게 식량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WFP는 북한 역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본 함경북도와 양강도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나눠줬다고 설명하였음. 먼저 주민 4만 4,000명에게 7일 치 분량의 비스킷과 30일 분량의 콩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9만 6,000명에게도 같은 식량을 배분하였음.
- WFP의 달린 북한사무소장 타이모 소장은 "북한의 북쪽 지역은 겨울에 기온이 영하 25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극심한 추위를 겪는다"며 "겨울을 나려면 주민들에게 계속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WFP는 2017년 8월까지 북한에 식량 지원을 계속하려면 2,100만 달러(약 236억 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유엔 WFP "홍수 피해 북한 주민 14만 명에 식량 지원"", 2016.09.14.

국제적십자,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실시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난 북한 함경북도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 52만 달러(5억 9,000만 원 상당)를 지원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IFR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함경북도의 수재민들을 위해 52만 달러의 특별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사용해 북한에서 수해를 입은 5,000가구, 2만 명을 즉각 지원한다"고 밝혔음.
- IFRC는 "특별 지원금 투입에 앞서 2,500가구에 이어 또 다른 2,500가구에 비닐 박막과 주방기기, 이불, 위생 용품, 물통, 수질 정화제, 공구 등을 분배하였다"면서 "(내년 3월 2일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재민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한편 북한 내 적십자 창고에 예비 구호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국제적십자, 북한 수해복구 52만 달러 긴급지원", 2016.09.14.

WHO, 북한 수해 복구비 17만 5,000달러 지원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 수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건 지원을 위해 미화 17만 5,000달러를 투입하였다"고 밝혔음.
- WHO는 "이 자금은 WHO 동남아시아 지역 비상기금에서 조달한 것으로, 북한 보건성의 지원 요청을 받은 지 24시간 안에 집행하였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하였음.
- WHO는 "이 자금으로 홍수 피해 지역에 응급 보건세트 26개를 비치하였다"며 "응급 보건 세트 한 개로 3개월 동안 1만 명의 진료가 가능해 모두 26만 명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비상기금으로 진료소로 사용할 수 있는 천막 5개를 수해 지역에 세우고 설사 치료약과 수질 정화제 등을 분배하였음.

- 크리스 스테인스 평양 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북한의) 농경지 1만 6,000ha가 침수된 것은 당장 수재민의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내년 농사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노컷뉴스, "세계보건기구, "북한 수해 복구비 17만 5천 달러 투입"", 2016.09.16.

UN, 북한 수해 긴급지원 모금 시작

- UN이 최근 대규모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2,820만 달러(약 316억 원)가 필요하다고 모금에 나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모금액을 앞으로 6개월간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 수재민 60만 명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전날 성명을 통해 밝혔음.

- 유엔이 공개한 '홍수 긴급 대응계획'에 따르면 수재민 1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식량, 종자, 가축 등을 제공하고 현지 농장 온실 복구를 지원할 예정임. 의료 기관에 설사, 급성 호흡기질병 치료약과 기본 의약품을 비치하며 출산과 신생아 관련 응급 진료도 실시할 예정임.

- 유엔은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와 임시 숙소와 화장실, 목욕·세탁시설, 위생·주방 용품 등을 제공하며 학생 1만여 명에게 학용품 등도 분배할 계획임.

한국경제, "유엔 '북한 수해 긴급지원 모금'...300억 이상 규모", 2016.09.20.

WFP, 북한 수재민 4만 4,000명에게 비스킷·콩 등 지원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 약 4만 4,000명에게 영양비스킷과 콩 등의 식량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WFP는 국가지원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요청을 받아 영양비스킷 77톤과 콩 79톤을 긴급 지원한다"며 "홍수 피해가 농경지와 관개 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미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였음.

뉴스1, "WFP '북한 수재민 4만 4천 명에게 비스킷·콩 등 지원'", 2016.09.21.

유엔, 북한 수해 복구에 410만 달러 지원 결정

- 유엔이 북한의 함경북도 수재민에게 식량과 식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긴급대응지원금' 명목으로 410만 달러(한화 45억 1,000만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북한에서 활동 중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 3개 기구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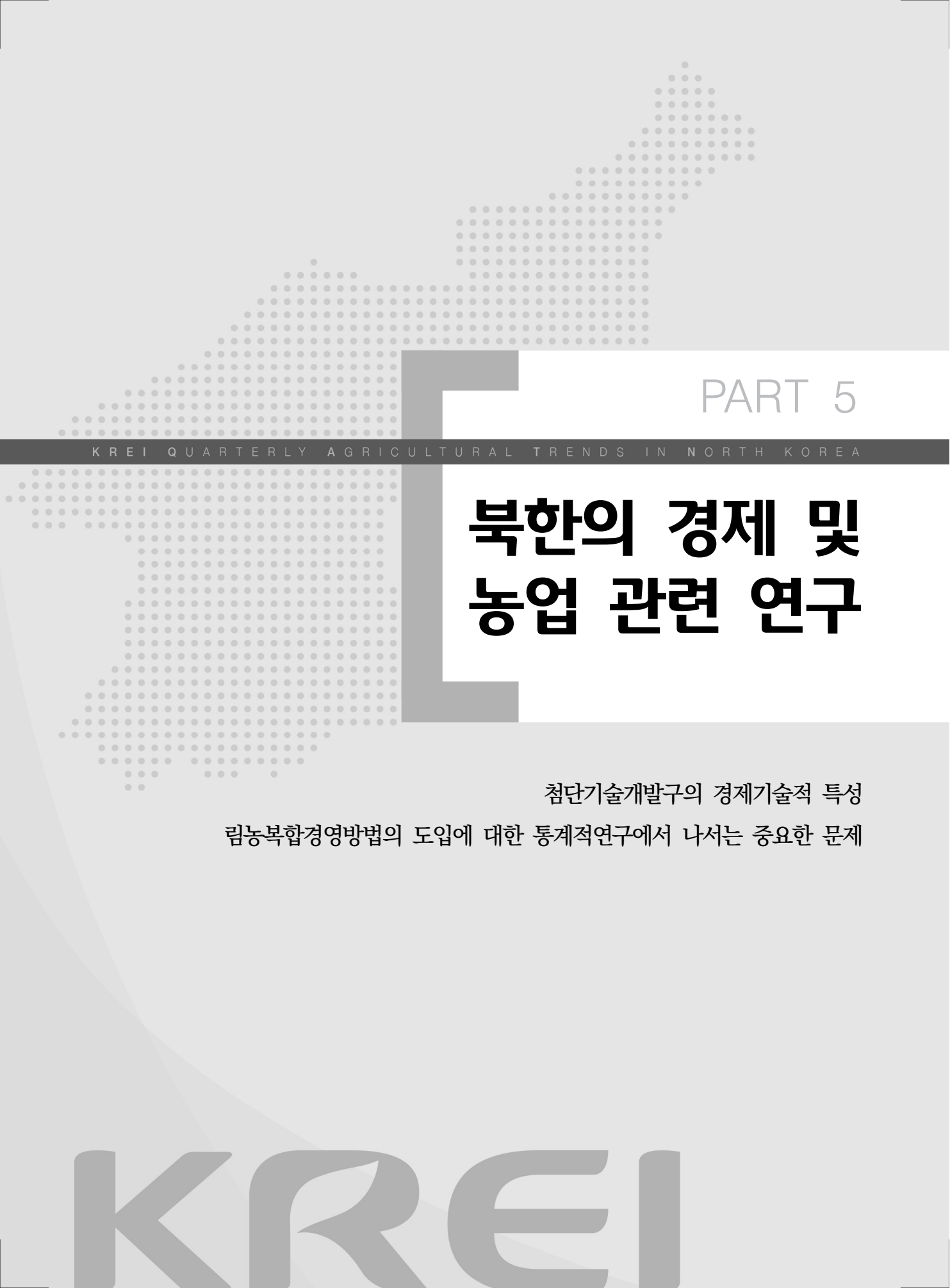
- 이 가운데 WFP에 배정된 180만 달러(19억 8,000만 원)는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데 투입될 예정임.

중국, 북한에 대규모 식량 지원

-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 지원을 하였음.

- 대북 소식통은 2016년 8월 14일 "중국이 올해(2016년) 중으로 북한에 식량 50만 톤을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중국 관계자들에게서 확인하였다"며 "(2016년) 8월 초 대북 지원 옥수수를 실은 20톤 급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북한-중국 국경 지역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말하였음.

- 중국은 이와 함께 최근 대북 원유 공급과 무역 규모도 늘리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북한-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였음.
-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2016년 6월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中, 북한에 식량 퍼주기... 제재 역행", 2016.08.15.



PART 5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첨단기술개발구의 경제기술적 특성
림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에 대한 통계적연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KREI



첨단기술개발구의 경제기술적 특성*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박 영 철

- 21세기는 지식 경제 시대, 정보 산업 시대임.
 - 오늘날 세계 경제는 지식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식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일신시켜나가는 것은 시대적 과업임.
- 경제 강국 건설의 지름길은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임.
 - 김정은은《은정과학지구를 비롯하여 과학 기술 역량이 집중되어있는 지구들에 첨단 기술 개발구들을 창설하는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하며 그것을 시범으로 하여 경제 전반을 지식 경제로 전환시켜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음.
 - 지식 경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 경제 개발구들이 많이 출현하였음. 경제 개발구의 대표적인 형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고 있는 첨단기술개발구임.
- 첨단기술개발구에는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형태의 기업이 속해 있음.
 - 첨단기술개발구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의 연구와 개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 과학 기술 사업과 생산 경영 활동이 하나의 유기체로 밀착되어있음.
 - 첨단기술개발구는 과학 기술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술 개발구 또는 한 분야에 전문화된 제품 생산 기지로 창설할 수도 있음.
- 첨단기술개발구는 일반경제개발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첫 번째 특성은 과학 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지역이라는 것임.
 - 과학 기술과 생산이 밀착되고 일체화되는 것은 현대 과학 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로, 현대 산업의 중요한 특징임. 첨단기술개발구에서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생산과 하나의 연속 공정으로 일체화됨.

*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년 제4호(누계 제 169호)에 수록된 “첨단기술개발구의 경제기술적특성”을 요약·정리하였음.

- 첨단기술개발구에 위치한 기업은 첨단 기술에 기초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주도함. 즉 첨단 과학 기술은 첨단기술개발구의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첨단기술개발구의 두 번째 특성은 기업이 기술 장비와 생산 체계에 기초하여 지적 제품, 특히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임.
 - 지식 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제품은 지적 제품이며 지적 제품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가 첨단 기술 제품임. 물론 지식 경제 시대에도 기계제 산업 시대, 공업 경제 시대에 생산하던 기존 제품을 생산하지만, 첨단 과학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품의 품질이 높아졌음.
 - 지적 제품, 특히 첨단 기술 제품은 지식 경제를 대표하는 생산물로서 지식 경제의 발전과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함. 첨단기술개발구는 지식, 정보 형태의 무형 지적 제품이나 유형 지적 제품,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함.
- 첨단 기술 제품은 제품의 용량 구조와 과학 기술적 가치, 그 특성에서 일반 물적 제품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짐.
 - 즉 첨단 기술 제품은 지식 용량, 기술 용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과학 기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제품임. 또한 첨단 기술 제품은 그 특성에서 독창성을 가지는 지적 창조물임.
- 첨단 기술 개발구의 또 다른 특성은 그것이 지식 경제 건설의 요구에 맞는 높은 실용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첨단기술개발구는 지식 경제 건설과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실현을 위한 첨단 기술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며, 첨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개발구 내에 위치한 기업이 기술 연구 성과를 도입하여 첨단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현실성을 확증하고, 도입 기간을 줄여 효과성을 최대로 높임.
 - 첨단 기술 제품의 빠른 생산 및 보급으로 경제 부문의 기술적 기초를 첨단 설비와 기술로 변혁함. 첨단 기술이 보급되어 기업은 노동 생산 능력과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생산 원가를 낮추며, 원자재와 에너지를 절약함.
- 첨단기술개발구는 경제 기술적 특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북한 자체의 기술력으로 경제 전반의 지식화를 선도하는 핵심 기지임.
-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하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새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새로운 첨단기술개발구를 계획적으로 창설 및 확대하고 있음.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에 대한 통계적연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김 광 일

- 현 시기 곡식 생산을 늘리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 것에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는 것에서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임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임.
- 임농복합경영방법은 산림 토지에 기름나무, 과일나무를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다년생 목본식물들과 곡식작물, 약초, 먹이풀 등 초본식물들을 배합하여 재배하거나 집짐승 기르기를 결합할 수 있게 함.
 - 이러한 경영방식은 토지의 퇴화를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물을 다양화하고 그 양을 늘릴 수 있게 하며 산림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
- 임농복합경영방법의 전면적 도입을 실현하려면 그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심화시켜야 함.
 -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 있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임농복합경영방법의 형태별 분류를 과학적으로 하는 것임.
 - 임농복합경영방법은 그 발생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과 적용방식이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농복합경영방법 도입 정형에 대한 통계적 파악과 분석을 진행하려면 형태별 분류를 과학적으로 진행해야 함.
- 임농복합경영방법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임농복합형방법, 임축복합형방법, 임농축복합형방법, 특수임농복합형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임농복합형방법에는 나무와 농작물을 함께 심어 재배하는 방법으로 조성 방법에 따라 나무와 농작물사이그루재배방법, 생울타리식재배방법, 농경지나무망재배방법 등이 있음.
 - 나무와 농작물사이그루재배방법은 나무와 농작물을 섞어 심는 방법으로 주로 줄식으로 섞어 심음.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2권 제3호

- 생울타리식재배방법은 농경지나 정원 주변에 나무를 심어 생울타리를 형성하고 농작물이나 원림식물을 심는 방법임.
- 농경지나무망재배방법은 나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물망 형식으로 심고 그 사이에 농작물을 심는 방법으로 농경지의 미기후를 개선하고 센 바람을 조절할 수 있게 함.
- 임축복합형방법은 나무와 먹이풀을 동시에 재배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나무와 먹이풀을 사이그루재배하는 방법, 목장주변에 집짐승먹이용짚을 생산하는 나무로 생울타리를 형성하는 방법 등이 속함.
- 임농축복합형방법은 임농복합형과 임축복합형을 결합시킨 방법으로 자연생태계와 매우 유사함. 이 복합방법을 잘 이용하면 단위 면적에서 목재와 식량, 고기 등을 동시에 많이 생산할 수 있음.
- 특수임농복합형방법은 자연생태계의 다양한 구조와 기능에 맞게 산림업과 농업을 결합시킨 방법임.
 - 자연생태계는 그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며 따라서 임농복합경영방법에서 결합 형태와 방식도 매우 다양함. 여기에는 나무와 약초재배, 나무와 버섯재배, 나무재배와 꿀벌치기 등을 결합한 방법들이 속함.
-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 있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임농복합경영방법 도입 정형을 특징짓는 통계 지표들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임.
 - 임농복합경영방법을 어느 정도 도입하였는가는 도입 면적지표에 의하여 특징지을 수 있음.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은 산림 면적 전체가 아니라 도입 적지에만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임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하려면 도입 대상지를 빠짐없이 조사·파악해야 함.
-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는 도입 대상지 면적과 도입된 면적을 각각 계산하고 두 지표를 대비하여 실지 도입된 면적이 도입 대상지 면적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밝혀야 함.
 - 도입 대상지 면적에는 임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하는데 적합한 땅과 또 반드시 도입해야 할 땅의 면적이 포함됨.
 - 대상지로는 산림의 발자리와 풀판, 채벌뒤자리와 같은 무림목지,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은 조림지, 전망적으로 쓸모가 적고 생산성이 낮은 산림개조대상지가 속함.
 - 발자리는 토양 및 지형조건에 관계없이 대상지로 규정하여 빠른 기간에 나무를 심어야 함. 대상지를 무림목지와 조림지, 산림개조대상지에 정할 때에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함. 대상지는 주민지구와의 거리가 5km안에 있는 지역의 산림 토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도입 대상지 면적은 밭자리 면적, 풀판 면적, 채벌뒤자리 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규모지표는 임농복합경영방법이 도입된 산림 면적으로 규정함. 이 면적은 나무심기와 가꾸기, 곡식을 비롯한 부산물재배관리공정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대로 집행된 대상 지역의 면적으로 규정함.
-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는 도입 대상지 중에서 도입된 면적의 규모를 형태별로 파악하고 총합을 계산해야 함.
 -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임농복합경영대상지의 면적과 그 중 도입된 면적의 규모를 파악하고 도입 정형을 형태별로 분석할 수 있음.
 - 나라의 전체 산림 면적에서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 대상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대상지 면적이 많은 것에서 실제로 도입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과정에 대한 통계적 연구는 북한에서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함.
-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 있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임농복합경영도입결과를 특징짓는 통계 지표들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임.
 -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결과는 산림의 상태를 특징짓는 지표, 임농복합경영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들에 의하여 특징지을 수 있음.
- 임농복합경영이 도입된 산림의 상태는 산림 토지의 상태, 심은 나무의 사름률, 정보당 조림밀도지표에 의하여 밝힐 수 있음.
 - 산림 토지의 상태는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의 근본 조건임. 임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하려면 산림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산림에 대한 관리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함.
 -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산림 토지의 비옥도가 점차 낮아지므로 심은 나무의 성장을 좋게 하며 재배작물의 단위당 생산성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비료와 부식토, 거름주기를 정상적으로 하여 지력을 보장해야 함.
 - 산림 토지의 상태를 특징짓기 위하여 산림 토지를 부류별로 나누고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특징짓는 지표들을 계산해야 함. 이러한 지표들로는 비료와 부식토, 거름준 총량지표와 단위 면적당 시비량지표를 선택할 수 있음.
 - 심은 나무의 사름률지표는 임농복합경영방법이 도입된 산림의 상태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 심은 나무의 사름률지표는 심은 나무모수와 산나무수를 대비하여 계산하며 이에 대한 통계적 관찰은 3년간 진행해야 함.
 - 정보당 조림밀도지표는 한 정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대수를 보여줌.

- 정보당 조림밀도를 보장하는 것은 임농복합경영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하다. 임농복합경영의 조건에서도 단위 면적의 산림 안에 기준나무대수가 보장되어야 산림으로서의 면모를 보장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조림밀도는 산림의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고 조림지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함.
 - 나무는 점차 자라면서 대당 영양 면적이 넓어지므로 성장발육정도에 따라 작물재배 면적은 점차 줄어들게 됨. 따라서 정보당 조림밀도는 영양 면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나무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게 규정해야 함.
 - 정보당 조림밀도지표는 조림수종별로 계산해야 함. 조림수종으로는 해당 지역의 자연기후조건에 적응되고 빨리 자라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류들을 선정해야 함. 이런 수종들로는 창성이깔나무, 호두나무, 평양보뿌라나무 등을 선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통계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종의 나무를 심을 면적과 대수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함.
- 임농복합경영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차별 면적당 기준에 도달한 나무대수지표와 곡식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지표, 임농복합경영의 효과성과 수익성지표 등이 속함.
- 차별 면적당 기준에 도달한 나무대수는 다 자라 기준에 도달한 나무수가 차별 면적당 평균 얼마인가를 보여줌.
- 해당 지표는 산림 조성과 관리의 최종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됨. 지표계산을 위하여 기준에 도달한 나무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차별면적과 대비해야 함. 지표계산에서 중요한것은 국가표준규격에 맞는 나무대수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임.
 - 곡식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지표는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결과를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임.
 - 산이 많은 북한의 실정에서 식량문제해결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산림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임. 임농복합경영방법은 산림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곡식 생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임.
 - 산림 토지를 이용하여 곡식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을 늘리려면 재배작물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함.
 - * 재배작물의 종류로는 경사지토양에서도 단위당 생산성이 높고 주민들의 수요가 높으며 심은 나무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작물들로 선정해야 함. 이러한 작물들로는 수수, 조, 콩, 팥, 녹두, 보라콩, 줄당콩, 고구마, 감자, 고추, 토마토, 무, 배추 등이 있음. 특히 고추는 산경사지에서 비교적 잘 자라고 단위당 생산성이 평지와 거의 같으며 그 수요도 매우 높음.
 -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결과에 얻은 곡식을 비롯한 농산물생산량을 특징짓기 위하여 재배작물의 종류별생산결과를 규정해야 함.

-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의 효과성과 수익성지표들은 이 방법도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임.
 - 임농복합경영의 효과성지표는 임농복합경영지출과 결과를 대비하여 계산함.
 - 해당 지표는 생산수단의 이용, 투자의 이용, 노동력의 이용의 측면에서 계산함. 여기에는 임농복합경영지 면적당 생산성지표, 임농복합경영투자액 만원당 생산성지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성지표 등이 속함.
 - 이러한 지표들은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산림 토지와 투자, 노동력이용의 효과성 정도를 보여줌. 이를 위하여 연간임농경영총생산량과 산림총축적지표들을 계산하여 임농총토지면적, 임농총투자액, 임농총로동지출량과 대비해야 함. 이러한 지표들의 계산 기간은 연구목적에 따라 비교적 오랜 기간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임농복합경영의 수익성지표는 이 방법 도입의 실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임.
 - 부침땅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서 과학적이며 실리있는 산림경영방법을 받아들여 산림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있는 중요한 요구임.
 - 임농복합경영의 수익성지표는 바로 산림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임. 이 지표는 임농복합경영결과에 얻어진 순소득을 총지출과 대비하여 계산함.
- 우리는 임농복합경영방법의 도입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현실에 구현함으로써 곡식 생산을 늘리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 것에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함.



PART 6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부 록

남북한 교역 통계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KREI

◆ 남북한 교역 통계¹⁾

표 1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2011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2012	36,504	377	1,073,952	45,311	705	897,153	1,971,105	△176,799
2013	20,566	359	615,243	25,562	644	520,604	1,135,847	△94,640
2014	38,460	349	1,206,202	47,698	697	1,136,437	2,342,639	△69,765
2015	45,640	362	1,452,360	55,267	718	1,262,116	2,714,476	△190,244
소 계	371,622	847	12,410,599	426,027	1,105	12,074,570	24,485,169	△336,029
2016.1	4,180	211	147,344	4,986	430	119,192	266,536	△28,152
2016.2	1,166	151	38,536	1,088	271	26,561	65,097	△11,975
총 계	376,968	848	12,596,479	432,101	1,105	12,220,323	24,816,802	△376,156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96호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6.05.24.

1) 유의미한 교류협력 통계가 없어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은 2016년 3월호부터 발간되지 않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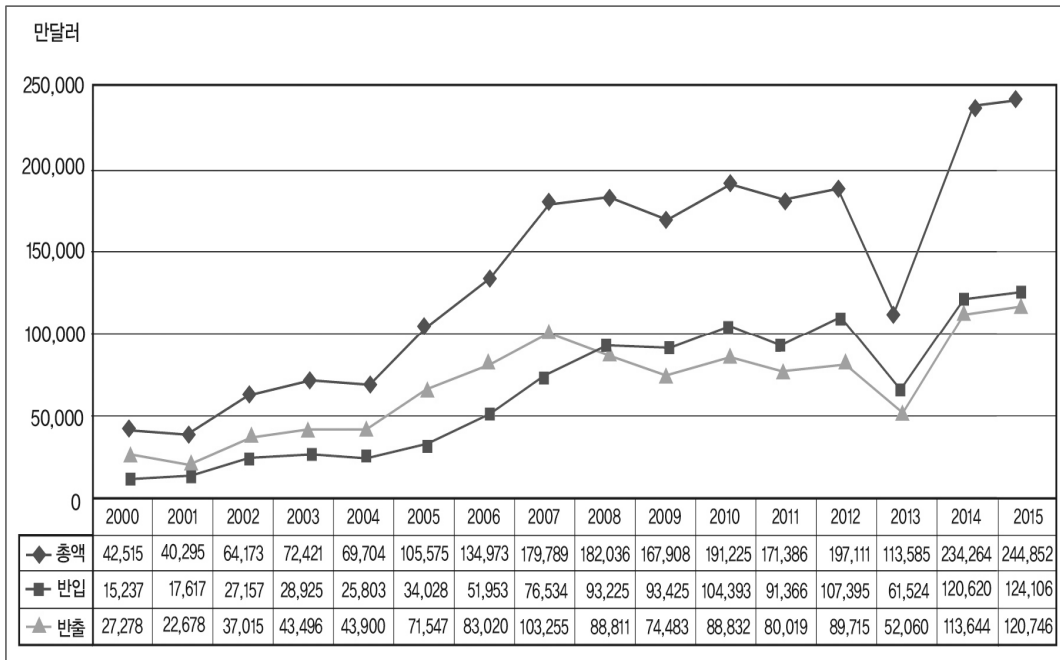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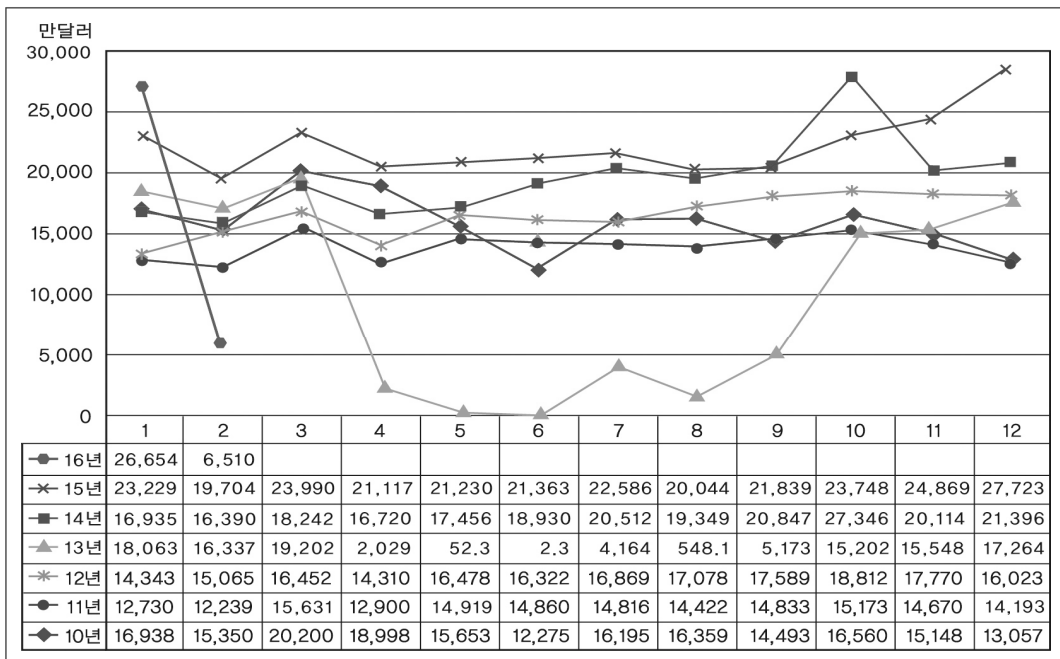


표 2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19	183	137,058	207,913	65,516	1,760	6,278	4,685	78,239	286,152	△129,674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66,270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46,963
2011	3,343	-	0	2,263	5,607	24,340	641	318	2,167	27,464	33,071	21,857
2012	4,494	-	180	1,951	6,626	25,935	1,254	1,239	1,858	30,286	36,912	23,660
2013	2,170	-	13	1,614	3,798	14,697	814	334	1,192	17,036	20,834	13,238
2014	4,416	-	45	1,798	6,262	25,609	3,964	707	1,517	31,801	38,063	25,539
2015	5,649	-	62	1,935	7,644	18,802	1,503	967	2,516	23,788	31,432	16,144
소 계	534,608	3,336	51,445	1,030,335	1,619,729	1,047,010	34,288	32,989	34,725	1,149,012	2,768,741	△470,717
2016.1	521	-	1	313	835	1,389	13	16	92	1,510	2,345	675
2016.2	369	-	-	96	465	391	1	3	43	438	903	27
총 계	535,498	3,336	51,446	1,030,744	1,621,029	1,048,790	34,302	33,008	34,860	1,150,960	2,771,989	△470,06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94~296.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 2016.05.24.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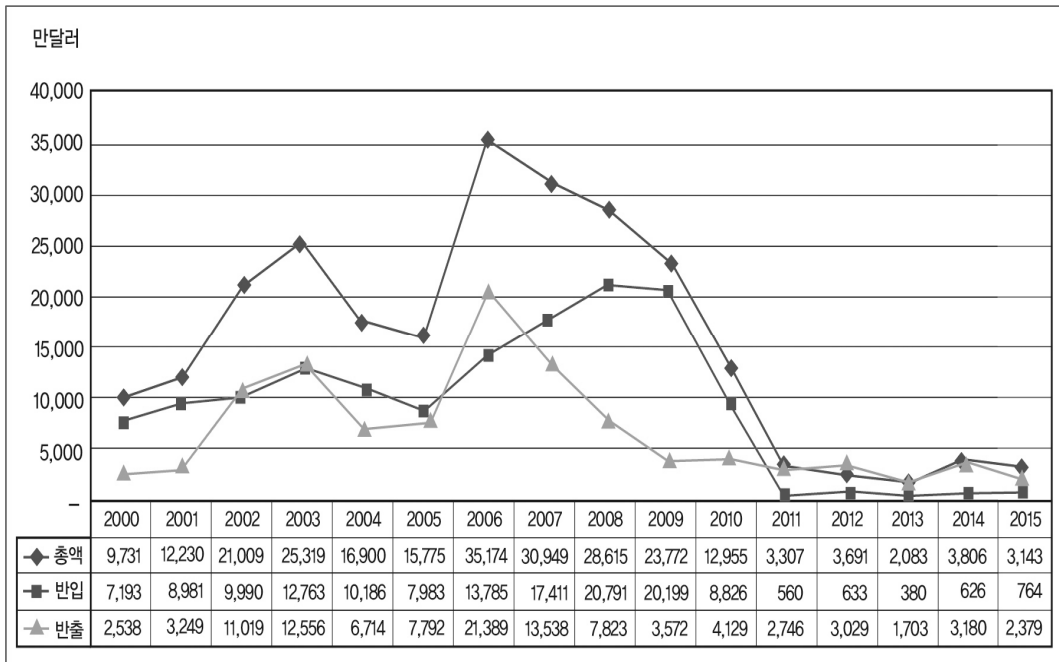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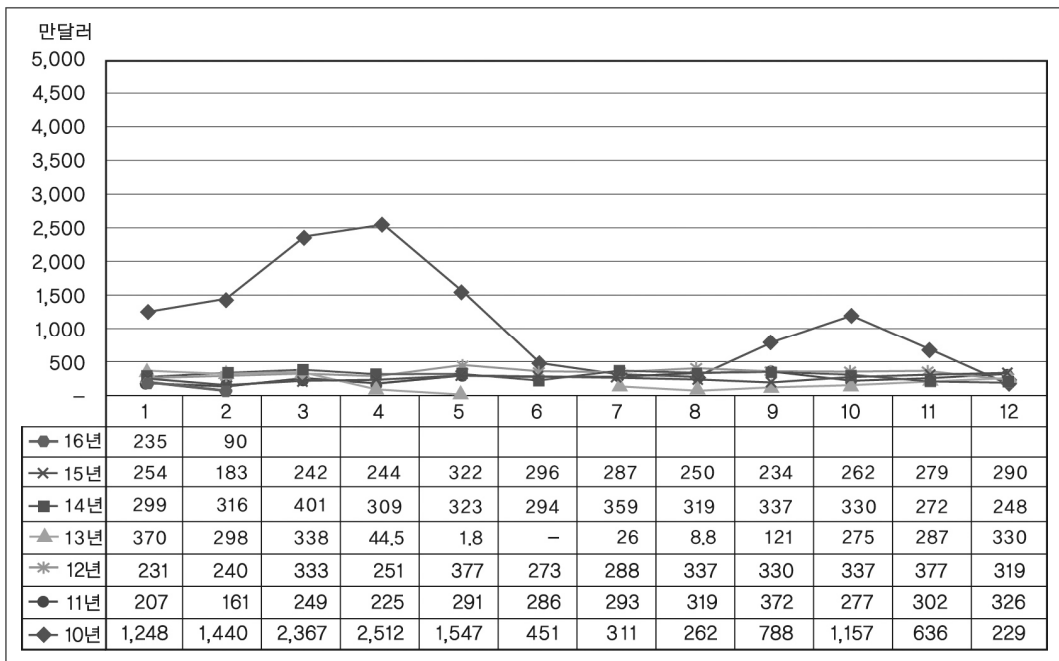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¹⁾

1.1. 곡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북한쌀 (시장가격)	6,317 0.78	6,083 0.74	5,567 0.69	4,783 0.58	4,275 0.57	4,758 0.64	6,508 0.78	5,350 0.66	4,967 0.60	5,150 0.63	6,067 0.71	5,475 0.63	5,093 0.63	5,057 0.61	5,411 0.66
북한쌀 (국정가격)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46 0.01
한국쌀															
중국쌀	5,700 0.71	5,767 0.71	5,067 0.62	4,833 0.59	4,592 0.61	4,875 0.65	5,842 0.70	4,833 0.59	5,017 0.61	5,100 0.62	5,175 0.61	5,125 0.59	5,068 0.62	4,750 0.57	4,975 0.60
두부콩	6,117 0.76	6,517 0.80	6,283 0.77	5,717 0.69	5,233 0.70	5,233 0.70	5,417 0.65	4,717 0.58	4,425 0.54	4,583 0.56	3,557 0.42	3,858 0.44	3,845 0.47	3,845 0.46	4,378 0.53
통옥수수 (시장가격)	2,550 0.32	2,333 0.29	2,267 0.28	2,083 0.25	1,525 0.20	2,733 0.37	2,917 0.35	1,958 0.24	1,667 0.20	1,817 0.22	2,058 0.24	2,092 0.24	2,012 0.25	1,842 0.22	1,088 0.13
통옥수수 (국정가격)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25 0.00
감자	717 0.09	908 0.11	950 0.12	1,083 0.13	967 0.13	833 0.11	1,193 0.14	1,177 0.14	1,100 0.13	983 0.12	950 0.11	858 0.10	890 0.11	483 0.06	883 0.11
고구마	2,075 0.26					1,212 0.16		1,033 0.13	1,105 0.13	1,230 0.15	1,020 0.12	1,208 0.14			

1)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은 북한 내 6개 시장의 평균 가격임

1.2. 채소과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시과	6,083 0.76	5,833 0.71	6,650 0.82	5,617 0.68	5,017 0.67	4,550 0.61	4,225 0.51	4,258 0.52	4,492 0.55	4,658 0.57	3,550 0.42	3,983 0.46	2,893 0.36	1,492 0.18	1,538 0.19
배추	1,133 0.14	1,733 0.21	1,583 0.20	1,725 0.21	3,100 0.41	4,050 0.54	3,475 0.42	3,475 0.43	2,917 0.35	1,883 0.23	2,033 0.24	2,525 0.29	6,158 0.76	1,155 0.14	1,693 0.21
무우	908 0.11	1,458 0.18	1,067 0.13	1,000 0.12	1,133 0.15	1,667 0.22	1,400 0.17	1,400 0.17	1,492 0.18	850 0.10	1,033 0.12	1,265 0.14	2,808 0.35	2,000 0.24	1,030 0.13
콩나물	900 0.11				1,500 0.20	1,083 0.14		1,517 0.19	1,500 0.18	1,410 0.17	1,195 0.14	1,500 0.17			
마늘	7,933 0.99												12,808 1.58	12,808 1.54	10,567 1.28
팔													7,457 0.92	6,492 0.78	5,983 0.73
참깨													14,700 1.81	15,317 1.85	14,533 1.76
양파													7,143 0.88	6,497 0.78	5,520 0.67
건고추													25,533 3.15	25,533 3.08	23,150 2.81
호박													없음	4,775 0.58	1,600 0.19

주: 사과와 단위는 1알(약 300g)임.

1.3. 임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반													12,317	12,317	10,867
													1.52	1.49	1.32
물													26,133	26,133	20,442
													3.22	3.15	2.48
건표고													37,078	37,078	33,767
													4.57	4.47	4.10

1.4. 축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돼지고기	12,083	12,083	15,917	19,500	16,917	13,667	16,083	16,083	13,500	11,567	14,750	10,717	12,917	9,842	11,767
	1.50	1.48	1.96	2.37	2.26	1.83	1.94	1.97	1.64	1.40	1.73	1.23	1.59	1.19	1.43
닭고기					11,676	12,950	14,933						31,717	31,717	26,942
					1.56	1.73	1.80							3.82	3.27
달걀	792	842	988	1,017	892	942	1,075	1,075	1,000	800	833	917	850	655	520
	0.10	0.10	0.12	0.12	0.12	0.13	0.13	0.13	0.12	0.10	0.10	0.11	0.10	0.08	0.06

주1: 달걀의 단위는 1알임.

1.5. 수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냉동명태	7,200	8,083	7,483	6,950	6,767	6,583	6,508	6,883	6,867	6,817	11,283	13,500	14,813	13,158	13,842
마른명태	0.89	0.99	0.92	0.84	0.91	0.88	0.78	0.84	0.83	0.83	1.33	1.55	1.83	1.59	1.68
마른명태	6,583	6,617	6,350	6,217	5,683	5,500	5,400	6,557	6,458	5,925	6,492	6,683	6,424	6,467	5,402
마른낙지 (건조장어)	0.82	0.81	0.78	0.75	0.76	0.74	0.65	0.81	0.78	0.72	0.76	0.77	0.79	0.78	0.66
마른낙지	3,167	3,167	3,050	3,008	2,767	2,600	2,900	2,750	2,750	2,917	2,917	3,150	4,113		5,000
(건조장어)	0.39	0.39	0.38	0.37	0.37	0.35	0.35	0.34	0.33	0.35	0.34	0.36	0.51		0.61
김	6,125	563	572	842	567	567	567	567	500	520	520	520	508	508	523
김	0.76	0.07	0.07	0.10	0.08	0.08	0.07	0.07	0.06	0.06	0.06	0.06	0.06	0.06	0.06
미역	3,867	3,867	4,283	4,150	3,833	4,017	3,817	3,817	4,067	3,317	3,450	3,267		3,550	2,938
미역	0.48	0.47	0.53	0.50	0.51	0.54	0.46	0.47	0.49	0.40	0.41	0.37		0.43	0.36
소금	1,042	950	900	1,017	600	575	625	625	663	442	867	883	900	613	525
소금	0.13	0.12	0.11	0.12	0.08	0.08	0.08	0.08	0.08	0.05	0.10	0.10	0.11	0.07	0.06

주1: 냉동명태, 마른명태의 단위는 1마리임.

주2: 마른낙지의 단위는 20마리임.

주3: 김의 단위는 20장임.

1.6. 가공식품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밀가루	6,408	5,867	5,283	5,167	5,283	5,333	5,413	5,408	5,392	5,533	5,083	5,002	5,000	5,008	5,040
밀가루	0.80	0.72	0.65	0.63	0.71	0.71	0.65	0.66	0.65	0.67	0.60	0.57	0.62	0.60	0.61
(농마)국수	6,550	6,233	6,083	5,750	5,183	5,417	5,500	5,500	5,500	5,567	5,033	4,558	4,350	4,567	4,575
(농마)국수	0.81	0.76	0.75	0.70	0.69	0.72	0.66	0.67	0.67	0.68	0.59	0.52	0.54	0.55	0.56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두부	1,117 0.14	1,283 0.16	1,233 0.15	1,092 0.13	992 0.13	933 0.12	1,175 0.14	1,317 0.16	1,100 0.13	1,342 0.16	983 0.12	983 0.11	1,075 0.13	1,033 0.12	1,120 0.14
생선동조림	6,117 0.76	6,400 0.78	6,350 0.78	6,233 0.76	6,058 0.81	6,158 0.82	6,208 0.75	5,668 0.69	5,668 0.69	5,867 0.71	5,867 0.69	5,867 0.67	5,133 0.63	5,133 0.62	8,861 1.08
콩기름	13,667 1.70	14,583 1.78	15,917 1.96	16,417 1.99	15,500 2.07	15,417 2.06	16,000 1.93	16,000 1.96	12,000 1.46	13,167 1.60	13,250 1.56	12,100 1.39	12,782 1.58	12,188 1.47	12,883 1.56
과일통조림	6,100 0.76	6,100 0.75	6,100 0.75	6,080 0.74	5,833 0.78	5,783 0.77	5,783 0.70	5,783 0.71	5,783 0.70	5,783 0.70	5,383 0.63	5,317 0.61	5,277 0.65	5,277 0.64	5,317 0.65
시탕	7,450 0.93	8,167 1.00	8,250 1.02	7,917 0.96	7,450 1.00	7,183 0.96	7,217 0.87	6,350 0.78	6,400 0.78	6,042 0.73	5,683 0.67	4,695 0.54	5,182 0.64	5,630 0.68	5,088 0.61
과자	7,467 0.93	7,467 0.91	7,467 0.92	7,667 0.93	6,500 0.87	6,233 0.83	6,475 0.78	6,475 0.79	6,475 0.79	6,083 0.74	5,558 0.65	5,942 0.68	6,448 0.79	6,092 0.73	5,443 0.66
시탕가루	6,608 0.82	7,317 0.90	7,217 0.89	7,217 0.88	6,100 0.82	5,633 0.75	5,967 0.72	5,983 0.73	5,850 0.71	5,758 0.70	5,308 0.62	5,125 0.59	6,033 0.74	5,500 0.66	6,100 0.74
간장	9,417 1.17	8,583 1.05	8,583 1.06	8,333 1.01	7,633 1.02	7,950 1.06	7,950 0.96	7,950 0.98	7,950 0.96	7,883 0.96	7,883 0.93	7,583 0.87	7,083 0.87	7,083 0.85	7,033 0.85
박된장		2,967 0.36	2,967 0.37	2,883 0.35	2,517 0.34	2,267 0.30	2,267 0.27	2,267 0.28	2,267 0.28	2,167 0.26	2,167 0.25	2,167 0.25	2,125 0.26	2,417 0.29	1,837 0.22
된장	5,367 0.67	5,233 0.64	5,233 0.65	5,283 0.64	5,233 0.70	5,233 0.70	5,233 0.63	4,783 0.59	4,783 0.58	4,783 0.58	10,550 1.24	10,467 1.20			
고추장		5,250 0.64	5,250 0.65	5,167 0.63	4,933 0.66	4,933 0.66	4,933 0.59	4,700 0.58	4,700 0.57	4,700 0.57	13,333 1.57	12,983 1.49	12,983 1.60	13,267 1.60	10,908 1.32
맛내기 (조미료)	6,200 0.77	6,500 0.80	6,700 0.83	7,267 0.88	6,950 0.93	7,717 1.03	7,692 0.93	8,750 1.07	8,750 1.06	8,683 1.05	8,433 0.99	8,067 0.92	9,503 1.17	9,503 1.15	9,080 1.10
시키린					31,083 4.16	30,417 4.07	35,917 4.32	36,550 4.48	36,917 4.48	36,883 4.48	36,783 4.32	36,917 4.23			
커피믹스	610 0.08	1,200 0.15	1,717 0.21	2,000 0.24	1,717 0.23	1,050 0.14	1,375 0.17	1,400 0.17	1,508 0.18	1,900 0.23			2,033 0.25	5,000 0.60	5,067 0.61
파일주스	1,417 0.18	3,900 0.48	3,933 0.48	3,933 0.48	3,683 0.49	2,917 0.39	2,700 0.33	2,750 0.34	2,750 0.33	2,750 0.33	2,750 0.32	2,633 0.30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샘물 (신석샘물)	1,000 0.12	1,500 0.18	1,000 0.12	1,000 0.12	900 0.12	900 0.12	900 0.11	933 0.11	933 0.11	883 0.11	633 0.07	592 0.07	533 0.07	500 0.06	533 0.06
소주						2,500 0.33	3,000 0.36	3,000 0.37	3,000 0.36	3,000 0.36	3,000 0.35	3,000 0.34			

주1: 농마국수의 단위는 1그릇임.

주2: 두부의 단위는 1모임.

주3: 생선 및 과일 통조림의 단위는 1개(150g, 400g)임.

주3: 맛내기의 단위는 450g임.

주4: 커피믹스의 단위는 유리통 1통 기준임.

주5: 과일주스와 생물의 단위는 1병(500ml)임.

주6: 소주의 단위는 1병(360ml)임.

1.7. 비료 및 농자재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비닐박막													733 0.09	750 0.09	792 0.10
삽													9,110 1.12	9,568 1.15	15,010 1.82
호미													5,133 0.63	5,042 0.61	5,075 0.62
낫													6,193 0.76	5,647 0.68	5,692 0.69
수동분무기													52,467 6.47	104,000 12.54	99,667 12.10
비료													3,109 0.38	2,886 0.35	2,177 0.26

주1: 비닐박막의 단위는 1m임.

주2: 비료의 단위는 1kg임.

주3: 삽, 호미, 낫, 수동분무기의 단위는 1개임.

E02-2016-0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8권 제3호

찍 은 날	2016. 12.	펴낸날	2016. 12.
발 행 인	김 창 길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820-2000)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 02-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